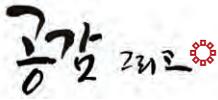


공간 그리프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3 Summer 2019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3 Summer 2019



김민정 작가 <사라지는 집_금강로131번나길 30> (2019)

온천장 재개발지역의 집들을 기록한 작업이다.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었을 집들은
현재 '공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래된 간판, 빛바랜 기와지붕, 집과 함께 살아온 나무 등
어느 하나 같은 풍경이 없는 다양한 집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내고자 했다.

등록번호 33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9. 7. 17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문진우 신용철 심창신 양화니 이연승 이재희 홍동식

편집기획 최윤진 박슬기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807-5100

- 04 **여는글**
안도 타다오, 정기용, 김중업



공감의 뱃고동

- 10 **Space**
또따또가 10년, 4필귀정
- 16 **Harmony**
학교라는 세상을 벗어나 꿈을 꾸다
'다르게' 사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 24 **Issue**
예술인에게 기본 권리를,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 30 **People**
시스템을 추적하여, 시스템을 균열 내자



공감기부

- 38 아트부산 2019, 그 현장을 가다

B-side

- 52 무대에서 가장 화려한 쇼걸, 드랙 퀸



돌아와요 부산항아

- 60 **니, 그거 아냐?**
부산 문화의 정수, 도자문화를 조명하며
흙, 불,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면... 부산요(釜山窯)
- 72 **누꼬?**
부산 사람이 되어 산화한 도봉 김윤태
- 80 **거 가봤나?**
역사를 품은 작은 마을, 기장 죽성리



그리고 재단

- 88 **듣기**
부산문화재단 인턴은 이렇게 바랍니다!
- 90 **말하기**
2019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7개의 '빛이 모이다'
- 92 **보기**
주요행사

여는글

안도 타다오 정기용 김중업

글: 신용철 민주공인 교육문화팀장, 본지 편집위원

“어떻게 벽을 세우고 금을 긋느냐에 따라 장소는 공간이 돼.”

(190612_안도 타다오, 글쓴이의 페이스북 2019년 6월 타임라인 참조)

» 지니어스 로사이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끄집어내는 욕망

제주도는 우리 안의 식민지 같았다. 가는 곳마다 갖가지 박물관(미술관, 역사관, 체험관)들이 언저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뜬금없이 앉아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제주도 아름다운 땅 곳곳에 생똥맛게 세워진 박물관을 보니 '조선박람회'(1929년, 경복궁)가 어른거린다. '조선박람회' 뒤로는 '동경권업박람회'(1907년, 동경)가 어른거린다. 서구를 따라 한 일본의 박람회 안에는 조선인들을 비롯 아시아의 갖가지 민족을 전시한 공간을 만들었다.

식민지 통치 뒤에 열린 조선박람회는 동경권업박람회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으며 식민 통치 20년을 온누리에 떠벌리는 공간이 되었다. 우리가 이른바 '엑스포'라고 부르는 또는 '박람회'라고 부르는 전시기계의 역사에는 제국주의의 훑든 눈길과 식민지의 내리간 눈길이란 그림 안에 더불어 살고 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라는 큰 박람회에 간다. 렌트카를 타고 아름다운 자연 곳곳에 세워진 갖가지 박물관에 가서 비싼 관람료를 내고, 비싼 인증샷을 찍고, 비싼 기념품을 사고, 때마다 줄줄이 비싼 쓰레기를 마구마구 쏟아내고는 면세품점에 들러 담배 한 보루나 화장품 한 통을 사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물으로 휘리릭 사라진다. 우리가 쏟아낸 쓰레기들은 제주도에서 나가지 못하고 때때로 동남아로 수출된다. 제주도는 우리 안의 욕망을 끄집어내도록 만들고 들여다보게 만든 곳이 되었다.

제주 섭지코지 바닷가에 선 안도 타다오

제주도에 머무른 사흘 동안 제주도가 아팠다. 첫날 먹은 음식에 체해서 이튿날까지 옴짝달싹하기 힘들었다. 이틀 만에 몸을 추스르고 숙소 언저리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서 안도 타다오를 만났다. 나는 안도 타다오를 알지 못했다. 이름이야 들었겠지만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가 만들었다는 글라스하우스와 지니어스 로사이는 섭지코지 바닷가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글라스하우스에 들어 있는 지포박물관이나 지니어스 로사이에 들어 있는 유민미술관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다. 바람에 몸을 싣고 소리에 귀를 담아 고요히 천천히 걸었다. 지



» 글라스하우스



» 지니어스 로사이



» 포제단(제주 마을굿당)

니어스 로사이가 들어선 장소는 제주도 마을굿당이 있던 땅 아래이다. 굿당 아래로 흘러들어 가듯이 이어진 길은 동굴, 고래배, 미로를 거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안도 타다오를 알고 싶어졌다.

안도 타다오에서 연상하는 건축가 정기용

안도 타다오의 건축작품은 건축가 정기용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일하고 꿈꾸는 곳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은 건축가 정기용의 작품이다. 민주항쟁기념관은 건너 쪽 산 위에 앉은 중앙공원 충혼탑을 바라보며 마주 앉아 있다. 충혼탑은 한국근대건축가 1세대인 김중업의 작품이다. 김중업은 김수근과 함께 한국근대건축의 바탕을 만든 이다. 김중업의 충혼탑은 송고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언저리를 억누르며 우뚝 솟아, 때론 산 위에 뜬금없이 선 팔루스(Phallus, 남자 성기 상징) 같기도 하다.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은 어금버금 비슷한 꼴이다. 저마다 기념을 하겠다고 언덕마다 우뚝우뚝 세우고 있는 팔루스를 상상해보며 혼자서 키득거린다. 상상해야 민주한다. 나는 좀더 불온하고 야해지고 싶다.

정기용의 민주공원(민주항쟁관) 건축은 '말하는 건축'이다. 건축이 저 스스로 제 말을 하는 건축이다. 기념비를 바라보는 건축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그리는 건축이다. 나는 정기용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안내자인가? 정기용의 이야기와 방문자의 이야기를 잘 만나게 하는 안내자인가? 묻는다.

정기용은 대장암 판정 이후 지니어스 로사이(유민미술관)에서 그의 건축세계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를 다룬 다큐영화 <말하는 건축가>(정재은, 2012)를 아직 보지 못했다. 정기용이 살아 있을 때 안도 타다오의 공간에서 전시회를 연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이어져 있다. 여기 아궁이 균불을 때면 저기 아궁이 밥이 끓는다. 우리는 이어져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중앙공원 충혼탑,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의 사진을 실지 않는다. 가까이 오시어 눈으로 마음으로 만나고 견주기 바란다. 곳곳에서 그대와 나는 눈길을 섞는다. 그대와 나는 이어져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대를 만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다.

공간의 바깥과 안쪽

010 Space | 또따또가 10년, 4필귀정

016 Harmony | 학교라는 세상을 벗어나 꿈을 꾸다
‘다르게’ 사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024 Issue | 예술인에게 기본 권리를,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030 People | 시스템을 추적하여, 시스템을 균열 내자



또따또가 10년,
 4.必
 歸正

글. 김희진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무릇 모든 일의 시작은 우려와 염려에서 출발한다. 즉, 생각이 많다는 것이다. 첫 단추를 맞추는 일의 중요성처럼 아이의 첫 걸음이나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이나 모두 위태하면서도 불안정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나중의 올바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많아야 한다. 생각이 모여 미래로 가는 계단이 한 층 한 층 쌓이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한 땀 한 땀 꾀다보면 아이의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이를 실존적 존재로 만들고 결국엔 위대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따또가, 그 10년의 성장 기록

위대함은 타인보다 우월한 어떤 가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이룬 성과를 통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음을 뜻한다. 영향을 외부에 미치는 모든 존재는 위대하다. 그리고 모든 위대함의 출발은 미약하고 불완전했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또따또가라는 이름으로 부산의 원도심에 생각들을 모으고 여러 형태의 걸음마를 선보였다.

그리고 이제 10년, 혼자 걷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타인과 적당히 대화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동무도 생기고, 알아보는 이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적당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순간의 기억들을 되새겨 볼 수도 있게 되었다. 짧은 기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변화도 많은 성장기의 경험들이 있었다. 모두 기억하고 기념할 순 없지만 세 포처럼 나누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된 순간들을 엮어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 가야 한다.

원도심에 뿌리 내린 생각들과 어울리는 연습

처음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을 때 단순히 작업 공간만을 생각하고 찾아온 예술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테면 안락한 구유 같은 안식처를 필요로 하거나 자기만의 방을 찾아온, 공간이 생기면 뭔가 이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린 마음으로 찾아온 예술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일단 공간을 제공 받으면 그렇게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들 기대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처음 세상을 만나며 울음으로 불안을 드러내듯이 또따또가의 입주 예술가들 역시 나름의 진통을 겪어야 했다.

또따또가는 자립형 프로젝트이다. 예술가들이 주어진 3년의 시간 동안 미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도 커져야 하겠지만 지역과 사귀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해가 성립하고 공통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질 때 공존의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원도심의 오래된 생각들과도 어울려야 한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했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예술가로서 뭔가 작은 활동이라도 지역민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





» 또따또가 예술가 창작공간



» 또따또가 오픈스튜디오.우리가 남이가(2016)

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행히 예술가들이 지닌 선함과 공존의식이 발동을 했다. 모두가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원도심에 매력을 느끼고 이곳에서의 자립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예술가들은 어울려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그렇게 하나둘 걸음마를 시작하고 천천히 느리지만 보폭을 좀 더 내디딜 수 있게 되어 갔다.

우리도 언젠가 맞이할 오래된 미래의 초상

시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문화축전, 거리문화행사, 골목프로젝트 등이 이렇게 시작되고 지속되어 갔다.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함께 나눌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따로 또 같이 어울리며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해 나갈 삶의 방식들을 경험했다.

골목과 거리, 식당과 카페, 계단과 옥상 등 창작공간을 둘러싼 환경들과 문화적으로 만나고, 터줏대감 건물주들과 지역 원로들, 식당 아줌마들과 구멍가게 아저씨, 폐지를 모으는 할아버지와 우체부, 택배 아저씨들, 옆 사무실 사장님과 아가씨들까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때론 눈웃음으로 서로의 안녕을 확인했다. 그렇게 예술가들이 원도심과 만나가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품었다. 원도심, 오래된 동네, 빈 사무실들, 나이든 사람들, 누수와 악취, 추위와 결빙, 더위와 침수, 낡은 화장실 등과 부대끼며 때론 악다구니가, 때론 편협함과 이기주의만 보이는 상황과도 대면해야 했다. 모든 게 묵은 관습이고 습관, 오래되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다.



» 40계단 토요문화광장 시즌1 토요일 4시 40계단에서 놀자.아이씨밴드(2018)

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었다. 언젠가 우리도 맞이할 어떤 태도가 오래된 미래처럼 존재했다. 넓게는 우리나라, 조금 좁혀서 부산, 그리고 지금 예술가들이 살아가는 이곳 원도심이 모두 그러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했고, 그 생각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원도심의 장점도 있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런저런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심결에 던지는 지혜들이 있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새롭게 원도심에 정착한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을 슬그머니 내비치는 이들도 있었다. 즉각적이진 않지만 뭔가 다른 미래를 예술가들이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원도심에 있었다. 예술가들도 이 느낌을 감지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원도심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따또가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또 다른 10년을 향한 위대한 항해의 시작

3년간 공간 지원, 다양한 예술 장르의 수용,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 등 또따또가는 외부의 관심을 받으며 지역 간 연대 활동도 꾸준히 펼쳤다. 우리가 가진 공간과 지역과의 연대, 각자의 재능을 밀천으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대전, 광주, 전주, 대구, 제주 등 국내 도시들의 예술가들과 후쿠오카, 뉴욕, 함부르크, 콜롬비아 등 해외 도시들의 예술가들이 오가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배울



▶ 또따또가 예술문화축전 체험.바람난 동시(2016)



건 배우고 나눌 건 나누며, 생존을 넘어 평화와 공존을 얘기하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의 가치를 되새김했다. 그렇게 예술가들은 또따또가라는 이름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새롭게 만들어 갔다.

세 번째 기간 중 지역에 남아 자립한 작가들과 앞으로 함께 원도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온전한 자립을 해야 하는 예술가들이 새롭게 자립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 함께 모여 노력하자는 취지였다. 또따또가의 4차 사업 운영도 맡았다. 먼저 걷기 시작한 예술가들이 새롭게 걸음을 떼는 후배 작가들의 뒷배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에서의 삶에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또따또가의 10년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이자 새로운 발걸음이 될 협동조합 활동은 나름 어깨가 무겁다. 지원만을 받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아닌 완전 자립을 이루고 스스로 누군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입장에 서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활동이기에 그렇다. 공적인 지원을 통해 터득한 걸음마의 요령을 향후 10년간 더 단련시켜 독립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실험이 더욱 중요하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의 10년은 위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 될 수 있도록 4차 사업의 출발은 '4필귀정'이란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학교라는 세상을 벗어나 꿈을 꾸다

글. 박의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살아?”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자라온 질문 중 하나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이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은 하나로 뭉쳐 “OOO하고 살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생에게는 학교라는 시스템이 주어지고, 학부모들도 똑같은 교육방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학교 밖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해왔고, 그만큼 다른 세상에서 각자를 바라보는 모습에 적응해왔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삶?

앞서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자 너무나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질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삶에는 큰 틀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들도 존재하고, 자퇴생이나 홈스쿨링 같이 비슷하지만 각자 학교 밖에서 다른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삶에 대해 질문받으면, 그냥 내 삶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자퇴생의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다. 나의 삶을 예로 들어 학교 밖을 표현한다면,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을 홈스쿨링으로 먼저 접하여 지금까지 자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했다. 이런 홈스쿨링의 삶은 나에게 많은 자퇴생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지금도 비슷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친구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초, 중 검정고시 이후로는 딱히 교과과정을 밟지 않았고, “수학공부를 어디까지 했냐?”라는 질문에는 “최소공배수까지 배웠다.”라는 대답으로 남들에게 웃음을 주고는 한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접하며 다른 세상을 공부했고, 학교를 벗어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열기구도 타보고, 클라이밍 선수도 지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등, 학교 밖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며 자랐다.



각자의 벗어남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세상은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든 학교 밖의 삶, 자퇴를 선택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에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고 자퇴를 결심한 계기와 사건들은 각각각색, 모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자퇴생 친구 2명에게 학교를 벗어난 가장 큰 이유를 짧게 물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왜 학교를 나왔어?”라는 본질적인 자퇴 사유 질문에 친구 2명은 신기하게도 이구동성, 같은 답변을 주었다.

“학교라는 시스템이 너무 힘들었고, 나랑 안 맞았어.”

이 두 청소년에게 학교라는 시스템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그 체제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2명의 청소년들은 자퇴를 선택했다.

곧바로 물은 두 번째 질문. “자퇴에 만족해?”라는 질문에 친구들은 “학교 밖 삶은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해 볼 수 있었어. 이 삶에 만족해.”라는 답변을 했다.

학교 밖과 학교 안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남’으로써 활용 가능한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은 각자 환경에 맞게 원하는 방식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국 직접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의무이자 권리로 작용한다. 그래서 난 학교 밖의 세상은 빠르게 내 것을 찾을 수 있고, 사회를 빨리 경험하기 무척 좋은 삶의 방법론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부탁한 2명의 친구들도 자퇴를 선택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 말이다.

학교 안과 밖의 차이

학교 밖과 학교 안의 차이는 그저 각자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 시스템에 문제만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슬픈 것은 사회가 학교 밖이라는 삶을 그리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 밖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나는 소리 높여 외치고 싶다.





‘다르게’ 사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글. 정명주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혐오와 차별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학업을 위해 현재를 유예해야 하고 자신의 삶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문제와 비행으로 받아들여지는 청소년에게도 이러한 단어는 비켜가지 않는다. 언제나 청소년 세대에 대한 거대한 혐오와 차별은 당연한 것인 양 자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홀로 버텨야 하는 그들

청소년 세대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혐오와 차별의 정점에 있는 대상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싸잡아 폄훼해도 되는 것일까.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삶이 틀렸다고 인식해도 되는 것일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꿈을 포기한 것도, 배움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며 제각기 다르게 살아가며 성장하고 있다.

재학생 대비 0.8%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1년에 약 6만 명에 이른다. 매일 164명이 학교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셈이다. 좀 더 와 닿게 설명하자면 4일에 학교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디에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

청소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청년이고 어디까지가 청소년인지 가끔 논란이 된다. 청소년의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기본법 만 9세에서 만 24세이고, 청년의 나이는 법적으로 만 15세에서 만 29세로 많은 기간이 청소년과 겹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연령의 벽도 의미가 없다. 학업도 노동도 취업을 위한 전투적인 준비도 모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어쩌면 청소년과 청년의 정책에서 연령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말해주고 있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늘 딱 그만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정해체, 돌봄의 부재, 인식의 부재를 온몸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대안교육 제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형, 취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이 달라야 한다. 전국 청소년지원센터(학교밖청소년거점)는 200여 개소에 달하고 부산은 자치구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육성 6차 5개년(2018~2020) 계획에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라는 중점과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률 제11조(자립지원), 법률 제8조(상담지원), 법률 제9조(교육지원)를 통해 지원체계 또한 만들어 가고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는 부정적 인식 개선과 또래들과 차별받지 않는 혜택의 관점에서 상담·교육·자기개발·진로·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더욱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전국에서 최대로 배출(31%)하고 있는 경기도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문화 활동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징검다리 거점공간 13개소를 설치해 단기·상설적으로 '교육, 진로, 자치 활동, 상담, 문화예술, 캠프, 여행' 등으로 각 기관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각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거나 개별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의 프로그램은 '서울 전체가 배움터'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학습의 영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대안 교육도 함께 변화하기 위한 고민의 장으로,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모델로서 교육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사회배움터로서 청소년지원센터 역할 확대 필요

부산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대부분의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상담 중심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지원되는데, 공간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몇 개의 시설들은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되어 이러한 공간과 활동의 영역들을 보완하고 있으며 각 센터들이 꿈다락과의 연계를 통한 토요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상구청소년지원센터에서 소통했던 학교 밖 청소년 KOY(Korea Opportunity Youth)는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로 가득했다. 목공으로 사회적 기업 'Thy COY'를 만든 청소년, 바리스타 동아리 '달달 볶는 친구들', 문화예술동아리 '아루스는 토요일이면 꿈다락으로 웹툰을 배우고, 주말마다 열리는 청소년축제에서는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검정고시 준비, 동아리활동, 소풍, 정기모임, 영상제작교실, 시화전, 벽화그리기, 여행 등 일상에서의 활동도 만들어갔으며, 1년에 한 번은 꼭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토크콘서트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여전히 은둔과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 또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지역사회배움터로서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예산은 물론 공간과 프로그램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청소년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향한 내용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 이후 활동으로 공간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일상이 묻어나야 한다.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청소년은 학교명을 상장에 쓸 수 없어서 불행하게도 수상에서 배제된 적이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걷어주면 좋겠다.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일 뿐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학업이든 문화예술 활동이든 청소년참여기구에 소속되든 구분 짓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든 청소년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예술인에게 기본 권리를,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글. 김태현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걸쳐75 이사장,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2018년 1월 '예술인 기본소득' 전국 최초 제안

들어가며

예술인들이 예술만으로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술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안 해본 이가 없을 것이다. 예술인들이 자기 예술에만 전념해도 생계 걱정 없는 조건이 된다면, 예술인들은 훨씬 질 높은 예술을 많이 창작할 수 있다. 그렇게 창작된 예술은 시민들과 만날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이고,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런 과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문화적으로 높여주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술이 가진 공공재적 가치가 자기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창작에만 전념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보려고 문예진흥기금이 있고, 다양한 예술인 지원제도가 있고, 국가 차원으로는 예술인 복지재단도 만들었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은 계기별로 여러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3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예술인 실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차원이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한 방도로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기본소득 제도란?

3년 전, 스위스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매달 성인에게 300만 원을 주고, 미성년자에게는 78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자원조달 방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가 많아 부결되었지만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 핀란드의 경우 정부가 기본소득 정책을 결정하고 2017년부터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 중이다. 매달 66만~92만 원의 소득을 지급하는 안인데, 스위스와 달리 핀란드 국민의 69%가 찬성했다.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유럽을 필두로 많은 나라들이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진 점이다. 소득 분배가 너무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가 소비할 수 있는 몫 자체가 심각하게 줄어 있다. 이 때문에 경제발전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고 함께 노동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등이 더 많은 일자리를 대신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활발히 연구, 실험 중인 기본소득은 현재 시행 중인 복지정책과는 다른 몇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원칙이다. 둘째는, 재산 규모나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받았다고 해서 요구되는 어떠한 노동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적 지급 원칙이다. 셋째는, 가구 단위의 지급이 아닌 개인 각자에게 지급하는 개별지급 원칙이다.

국가별 기본소득 제도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주도 기관	민간 단체 BIS	보수 성향 중앙정부	19개 시 지방정부
지급 대상	전 국민	시범 시행 후 전 국민 확대	19개 시 시범 시행
지급 내용	매달 성인 300만원, 미성년자 78만원	1인당 66만~92만원	1인 128만원, 부부 184만원

*자료 출처: 2016. 6. 5. 매일경제

국민 기본소득과 예술인 기본소득

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는,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합의해나가는 과정이다.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동의해줄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인 합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는, 자원조달 방안을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하여 전 국민적 동의를 잘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국토보유세 등 선진적 조세정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역시 장기적



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은 몇 가지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 성남시와 서울시가 ‘청년수당’이라는 것으로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2019년부터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시작했다.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 기본소득’의 또 한 영역이 농민이다. 농민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 범위에서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 예술인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기본소득’을 주장한 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을 ‘부분 기본소득 정책’의 3대 정책으로 정했다.



*자료 출처: 2019. 4. 3. 한겨레

부분 기본소득 정책 대상자의 기준

기본소득 정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되는 ‘부분 기본소득 정책’의 대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까? 필자는 이를 ‘공공성’과 ‘약자성’이라고 생각한다.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청년실업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청년은 약자성이 있는 집단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것에서 공공성은 당연히 존재한다. 농민 역시 마찬가지이다. 너도 나도 농업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농업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일로서 공공성과 약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예술인의 소득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약자성은 무척 심각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생산하는 창작물이 시민들과 다양한 형태로 만나는 과정은 충분히 공공적이다. 우선,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예술 향유 과정에서 시민들의 창의성 또한 높아진다. 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운동이 확대되면 시민들의 창의성과 문화다양성 지수가 높아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은 그 공공재적 가치가 어떤 것보다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 기본소득’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정책이다.

예술인의 소득 실태

올해 4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예술인은 72.7%에 달했다. 전체 연 평균 수입도 1,281만 원으로 3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6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평균(만 원)	550	869	949	329	5,808	1,128	1,750
분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평균(만 원)	1,298	2,065	1,030	1,891	1,510	2,177	1,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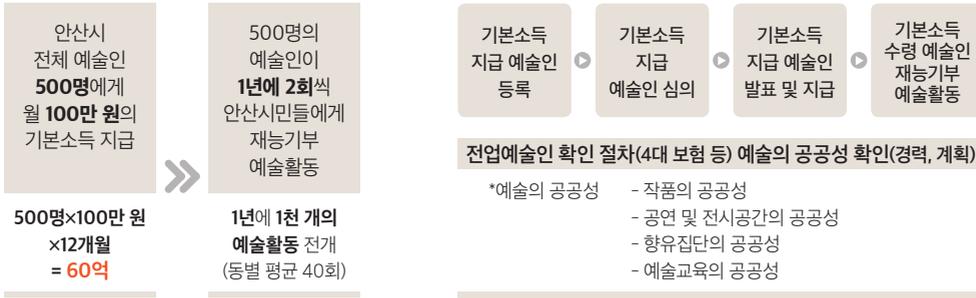
*자료 출처: 2019년 4월 문체부 보도자료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이므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1,745,150원이다. 그런데 월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72.7%라는 건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이는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없다. 어느 도시가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예술인 기본소득 내용

2018년 1월, 경기도 안산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정책 상상토크 '예술인 기본소득, 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때 이야기되었던 내용에 기반하여 예술인 기본소득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안산시 전업예술인 모두에게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기본소득의 특성에 무조건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따른 노동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 정책을 제안하는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연 2회씩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공성을 띤 예술 활동을 하자고 이야기되었다.

500명의 예술인에게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년에 1천 개의 예술난장이 도시 곳곳에서 벌어진다. 물론, 지금은 그 무조건성 때문에 재능기부식의 예술활동은 의무가 아닌 자발성에 기초해 선택하는 것 정도로 하고, 대신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자료 출처: 2018. 1. 11. '예술인 기본소득, 가능한가' 안산토론회

500명이라는 수는 엄밀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안산예총 회원 1,000명과 안산민예총 회원 100명, 그리고 두 단체 모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 100명 중 전업 예술인이 대략 40~50%에 달할 것으로 보고 도출한 숫자다. 이 부분은 엄밀한 기준을 세워 예술인 등록을 받으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추진경로는 위와 같이 예술인들이 지자체에 예술인 등록을 하고, 심의를 통해 예술인을 선정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예술인임을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는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술인 기본소득 대상 선별 기준

'예술인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에서 예술인의 소득실태를 극복하기 위함을 우선적으로 보면, 예술 활동이 본업이 되는 전업예술인에 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이 정책이 '국민 기본소득'을 향해가는 선도적 영역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는 경우다. 이 경우는 어차피 국민 모두 기본소득을 받는 시대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예술인들까지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필자도 무척 고민되는 대목인데, 우선 시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기준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에 의거, 예술인을 이렇게 규정한다.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더불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예술활동 증명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 3.~5. 삭제 <2014.3.28.>
6.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이 있는데 문학만 뽑아 보면 아래와 같다.

- 문학**
-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을 업(業)으로 삼아 본인이 참가한 창작물과 예술 활동이 존재하고, 이를 증명 가능하며 예술을 통한 소득이 있는 자’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시행규칙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가 망라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예술인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기본소득은 시대정신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시대에 아주 딱 맞는 정책이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정책이다. 우선, ‘국민 기본소득 시대’로 가는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선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또한, 현재 예술인들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다. 더불어, 이 정책을 통해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기 예술을 예술의 본질에 맞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공공적 가치를 생산하고 나누는 활동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방법도 된다. 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시민들이 곳곳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직접 예술 활동을 하며, 예술을 매개로 서로 관계 맺고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할 때 시민들의 창조적 역량이 높아진다. 시민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과 다양성지수 등 문화감수성이 높아질 때 우리 사회의 역동성 또한 커진다. 이는 다가오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다.

시스템을

Track The System 추적하여,

시스템을

Crack The System 균열 내자

글: 김진우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표
사진 제공: 이인우

올해 '정태춘·박은옥 40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 밖 예술 프로젝트'라는 같은 맥락의 또 다른 운영위원이 결성됐다. 4월 6일 한성1918에서 시작한 전시와 이후 한 달간 릴레이 콘서트, 연계 공연 등이 이어졌다. 전자는 데뷔 40주년을 맞은 '정태춘·박은옥'이라는 예술가에 대한 기념과 헌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의 프로젝트는 현재 대중예술을 만들고 소비하는 시장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부산에서 시작된 '시장 밖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노트에 가깝다.
'시장 밖 예술 프로젝트'에서 4월 6일 진행한 정태춘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

나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를
노래 속에 함께 담아 부르는 사람.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환경과
잘 화해하고 살지는 못 했어요.
세상과 불화한 삶,
불화 속에서도 사회와 함께 진행된 인식의 변화,
나의 분노에서부터 희망까지
솔직하게 표현해왔다고 생각해요.
- 정태춘

”



세상과 불화한 정태춘의 삶

1980년대 초반까지 뮤지션 정태춘은 대중의 선망을 받고 시장이 선택한 뮤지션이었다. 그는 1978년 <시인의 마을>로 데뷔 후 그해 MBC 신인가수상, TBC 방송가요대상 작사부문 수상, 이후 1984년 정태춘·박은옥 4집 <떠나가는 배>와 5집 <북한강에서>는 당시 100만 장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이기도 하다. 이른바 잘 팔리는 스타였다. 단지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 작사, 작곡으로 대중에게 그리고 시장의 인정을 받은 예술가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놓인 환경과 ‘불화한’ 삶을 선택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자신의 일기 같은 음악을 만들었던 데서 세상의 이야기를 담는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고 거리에 나서게 된다. 1989년 전교조를 지지하는 모금 공연 ‘송아지 송아지 누런 송아지’의 전국 순회 공연, 1990년 가요의 사전심의를 거부하며 비합법 음반 ‘아, 대한민국’을 발매, 1993년 두 번째 비합법 음반 ‘92년 종로에서’를 발표하며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을 이끈 활동가. 2000년대 들어 그의 고향 대추리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결합하여 대추리 평화예술 운동을 펼쳤다.

저항이나 대항, 맞서 싸운다는 표현보다 ‘불화’라는 표현에 끌린다. 물과 같이 흘러온 40년 음악 인생, 뜻하진 않았지만 거뒀던 상업적 성공과 또 어쩔 수 없이 자신 안에 들어온 세상의 이야기처럼 그는 이 불화한 선택을 하게끔, 그 선택에 따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왔음을 느낀다. 세상이 ‘옳다’고 만든 물의 방향이 애초에 화합할 수 없는 방향일 때, 누군가의 이익과 생각을 강요하기 위한 틀로 물길이나 있을 때에는 ‘불화’가 물의 자연을 회복시켜 주기에 그렇다.

‘시장 밖 예술’의 가능성 찾기

그로부터 20년간 굳이 대중 앞에, 시청자 앞에 서질 않았다. 음악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으며 음악이 아닌 또 다른 표현을 찾아 나섰다. 유통되고 소비되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이유였다. 시를 짓고 붓글씨를 썼으며, 가족 공예에도 전념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우리 앞에 선 그를 바라보게 됐다. ‘자신과 세상의 이야기를 담는 음악조차도 시장 안에서의 효용가치로만 재단하는 사회, 우리는 그 시장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며 다시 섰다. ‘시장 밖 예술’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부산에서 시작된 ‘시장 밖 예술 프로젝트’는 음악, 건축, 문학, 미술, 기획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각기 다른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활동가가 함께 테이블을 만들며 시작됐다. 긴박하게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아트홀 노드 대표이자 뮤지션인 이광혁과 나눴다. 2003년 처음 그를 알게 된 후(부산대학교 문창회관 어느 방에서 각자 살고 있었다.)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같이 지냈고 공간도 함께 운영해봤기에 어느 정도 각자의 호흡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서로가 이 바쁜 호흡이 관성이 되어 무엇을 향해 언제나 이렇듯 가쁘게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늦은 밤 돌이켜 진행한 회의에서. 어렵פות하지만 대중 비슷한(디테

일한 노선은 다르기에) 지향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함께해왔던 지난 16년 동안 우리 무엇을 바꾸었나?'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다시 막막해졌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대중에 의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적이 없고, 아직 우리는 생존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예술 창작자임을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함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역, 부산에서 활동하는, 그것도 비대중 예술가로서 말이다. 우리는 대중문화를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시장의 지배를 받아요.

그곳에는 효용가치에서 승리한 자와 낙오자만 있을 뿐이죠.

그곳에는 특혜를 받는 자와 차별을 받는 자만 있으며,

이를 만연케 한 비문명적 요소가 산업의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대중에게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 시장에 자신의 예술을 팔고 싶지 않은 예술가도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 공간을 확보하고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 정태춘

”



이광혁 대표와 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대중음악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할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음악을 단순히 창작자와 소비자만으로 나누는 이분법에 의해 우리의 예술은 분열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예술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쉽고 빠르게 즐기고 버리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음악 생태계에 던지는 파문

'나는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악을 하는가?' 아마도 많은 부분은 타인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음악 산업은 이 수많은 이유와 욕망을 커튼 뒤에 가려놓고 특정한 목적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 안에서 내면의 소리, 예측할 수 없는 음악적 실험, 각기 다른 삶과 생각과 취향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음악'이라는 선택지는 펼쳐볼 수 없다. '나의 음악'은 발견하기 어렵다. 산업으로서의 음악이 있을 뿐이다.



» 한성1918, 전시회 오픈전 작가 사인회

음악산업 시스템 밖(그것이 자의가 아닐지라도)에 있는 뮤지션들은 '존재'의 고찰을 통한 예술적 창작에 집중할 수 없다. 음악 창작을 위한 노동 이외의 절대 다수의 시간을 '생존'을 위한 노동에 써야 한다. 개인이 지닌 재능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음악적 완성도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여건(창작 시설과 유통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곧 대중의 소외와 마니아층과의 단절을 야기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음악은 상품으로 양산되고 일방향적 유통구조 안에서 소비될 뿐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음악 생산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 노동자, 노동조합의 가장 큰 무기인 연대를 통한 파업이 적용되기 어렵다. 파업을 통한 협상의 대상을 찾기도 어렵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제한도 없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음악 없이도 잘 돌아가는 사회로 보인다. 예술은 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요한 듯 보이는 음악 산업계에 작은 돌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음악을 하는 이유가, 그 과정이 음악적 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데 파문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획일적 음악, 이윤 추구의 목적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던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각자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가? 또한 파놓은 우물을 빼앗겨야 했던가? 그래, 다시 우물을 파보자. 우리의 현장인 공연장에서 우리가 길어낸 물을 나눠 마실 자들과 함께 파 보자. 우리의 현장은, 전선은 공연장에서 시작된다. 나의 음악을 들려주며 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시장은, 현장은 공연장이다. 우리의 전선이다. 우리는 공연장으로 돌아간다. 함께 우물을 팔 음악가들을 찾아 손잡고자 한다. 시스템을 추적하여, 시스템에 균열을 야기하자. 그 틈으로 공동의 비전과 희망을 기어코 찾아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살 수 있는 삶, 나의 취향 그리고 나의 음악이 꽃 필 거라 믿는다.

아트부산 2019
5.31-6.2, 2019

공간 리뷰

EXHIBITION CENTER I

제1전시장
Hall

1

038 아트부산 2019, 그 현장을 가다

2A

2

휴게실
Rest room

출입구

TICKET





D26
GALLERY 02
BARR &
SOUND (SEOUL)

아트부산 2019, 그 현장을 가다

글. 문수원 세종문화예술행연구소 대표
사진 제공. 아트부산

ART BUSAN



ART BUSAN



DAG
D1B

D20

g-gallery

10년 선배 KIAF와 나란히 선 아트부산

올해 아트부산은 시작 전부터 화려하게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그중 이전 해와 다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실시한 2018년 아트페어 평가 결과, 아트부산이 한국국제아트페어(이하 KIAF)와 함께 공동 1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트부산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반면 올해 KIAF는 18회를 맞이한다. 한 마디로 이들의 횡수는 10회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매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10년의 차이가 난다. 아트부산은 서울이 중심이고 10년의 경험 차이가 있는 KIAF와 어떻게 공동 1위를 하게 되었을까? 놀라움과 함께 의문이 든다. 그래서 문체부 자료를 살펴보았다. 문체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공동 1위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총 5등급 중 3등급이 이 두 아트페어였다.

2018년 아트페어 평가 결과¹⁾

*등급 내 가나다순으로 배열

등급	아트페어명*	'17년 대비
3등급 (2개)	아트부산	-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
4등급 (3개)	대구아트페어	↓
	아트광주	↑
	화랑미술제	신규
5등급 (10개)	부산국제아트페어	↓
	부산미협국제아트페어(BFAA)	신규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신규
	서울아트쇼	신규
	아시아프	↓
	아시아호텔아트페어	↓
	아트아시아	신규
	아트에디션	-
	안산국제아트페어	신규
	조형아트서울	신규

평가결과 1, 2등급은 없고 3등급에 KIAF와 아트부산이 있었다. 그렇다면 저 기준은 무엇일까? 관계자에게 문의해보니 1등급은 아트바젤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아트페어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서야 3등급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훨씬 오랜 경험이 있고 국내 최고라 자부하던 KIAF와 동급을 받았다는 것이 대견한 일로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아트부산을 초창기부터 봐왔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부산시민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세계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운이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1) 2018년 아트페어 평가 결과 발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중 일부 발췌



유럽 유명 갤러리 유치와 높은 작품 수준, 최다 관람객 유치

올해 아트부산은 5월 30일 목요일 VIP/Press 프리뷰를 시작으로 4일간 총 17개국의 164개 갤러리가 참여하였다. 작품 수로는 4,000여 점이 넘는다. 관람객은 6만 3,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아트 오브 더 월드 갤러리가 전시한 올해 출품작 중 최고가인 30억 원에 달하는 샘 프란시스의 작품부터 퀴니히, 소시에떼, 알민 레쉬, 페레즈 프로젝트 등 유럽에서 온 유명 갤러리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주요 화랑들이 좋은 작품으로 페어를 이끌며 작품들의 수준이 예년이 비해 매우 높아졌다. 다만, 몇몇 소규모 화랑들의 전시품에서 작품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와 관련된 보완책에 대해 관계자를 인터뷰해보니 아트부산은 ‘글로벌’을 지향점으로 삼으며, 세계적인 작품을 가져오는 좋은 갤러리도 유치하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성을 잊지 않고 또한 막 시작하는 초보컬렉터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입문용 역할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지역 페어에 너무 비싼 작품들만 있다면 관람객은 관람객으로만 그칠 것이고 컬렉터로의 전환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트부산의 역할이 컬렉터들을 양성하는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다.



» SHONIBARE_Ballerina with Violin
(Giselle)_2013



» 핀 울_치프테인 체어_Finn JUHL_Chieftain chair_1949
(re-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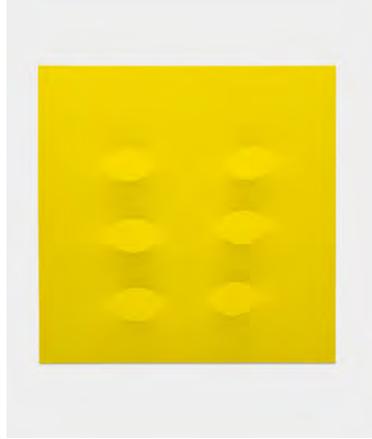
» TANG CONTEMPORARY ART
Al Weiwei_Dragon Vase_2017
Porcelain_52x51x51cm



» 갤러리바톤



» 국제갤러리 하종현 집합 05-171
2005 Oil on hemp cloth
180 × 120 cm



» ALMINE RECH_Turi SIMETI_Sei
ovali gialli_2015_Acrylic on shaped
canvas_100x100cm



» 갤러리소소

아쉬운 문화예술예산과 지원금

올해 초부터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트부산은 기존에 후원하던 기업들이 올해는 후원에서 빠지고 시로부터 3억 원씩 받던 지원금도 2억 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갤러리들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페어를 마무리한 것은 박수칠 만한 일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총 1.2%라고 한다.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관광과 소비의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빌바오, 가나자와, 나오시마 등의 사례를 통해 보았다. 좋은 문화콘텐츠를 가진 지역을 살리는 행사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관계자들도 알아줬으면 한다.



최다 관람객 대비 판매실적은?

최다 관람객을 유치한 만큼 갤러리들의 판매도 좋았을까? 몇 해째 아트부산을 찾는 해외갤러리들을 인터뷰한 결과 의외로 이전까지 잘해왔던 갤러리들이 올해는 하나도 못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의아해하며 관람객만 많았지 콜렉터가 별로 없었다는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또 다른 갤러리들은 아주 좋은 성적을 내었다. 이 간극은 무엇일까? 기존 콜렉터들이 한 단계 위의 작품을 산 것일까? 아니면 취향이 변한 것일까? 중요한 것은 갤러리들도 기존의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작품이나 작가 소개를 어느 정도 섞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미술시장의 매력

아트부산 개최기간 동안 퀴니히 갤러리의 요한 퀴니히 관장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보았다²⁾. 그에 따르면 한국 미술시장이 중국 미술시장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 중국은 구상이 대세인 반면 한국은 미니멀리즘적인 작품들도 잘 나간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처럼 유명 갤러리들은 추상, 미니멀, 설치, 단색화 등의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다. 그만큼 팔린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다.

해외갤러리를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금문제로 탁월하다. 우리는 관세법상 미술품을 수출입 할 때 사진이나 판화 같은 에디션이 있는 작품을 제외하면 세관신고만 하고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다³⁾. 반면 중국은 관세와 구입 시의 세금이 많이 붙는다고 한다. 그 결과 아트부산에는 해외갤러리들이 관세 걱정 없이 비싼 작품들도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2) <http://m.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86751>

3)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44954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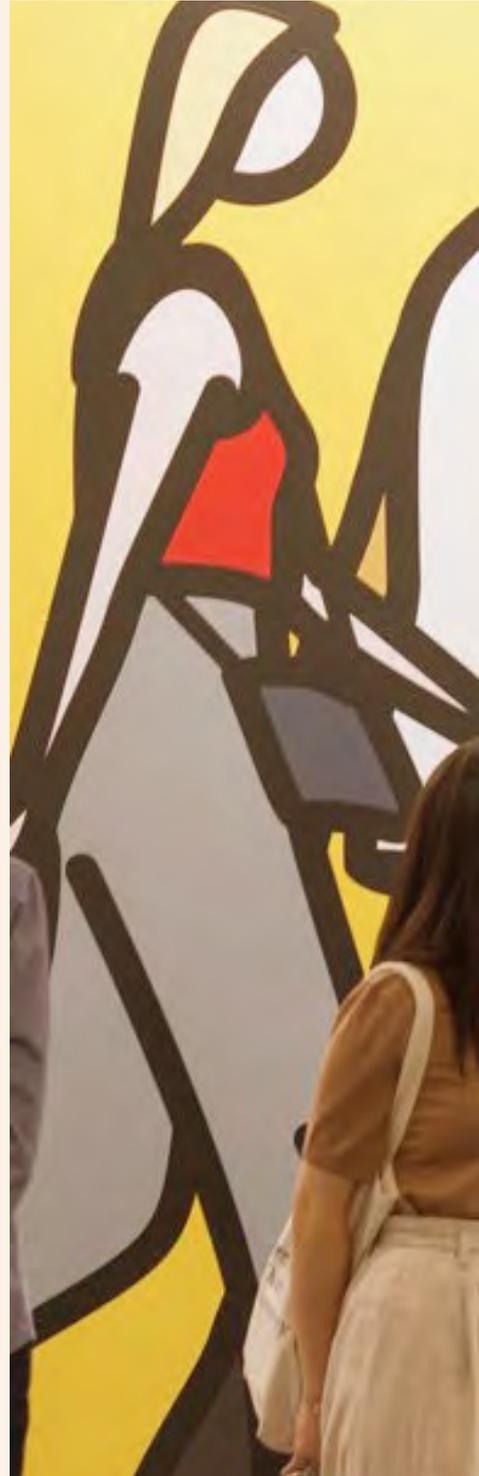


VIP라운지에서도 품격 있는 작품 감상

작년처럼 올해도 VIP라운지는 독일 유명 아트잡지인 타센이 운영하였다. 타센 측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작가 중 가장 높은 작품가를 기록한 제프 쿤스와 바로 직전까지 최고가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전시했다. 둘의 최고가 작품은 작품 하나당 1,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다. 물론 최고가인 그 작품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작품세계를 살짝 엿본 느낌은 들었다. 특히 박서보 작가도 소장하고 있다는 호크니의 빅북은 탐날 만했다. 하지만 그곳이 작품들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VIP라운지는 항상 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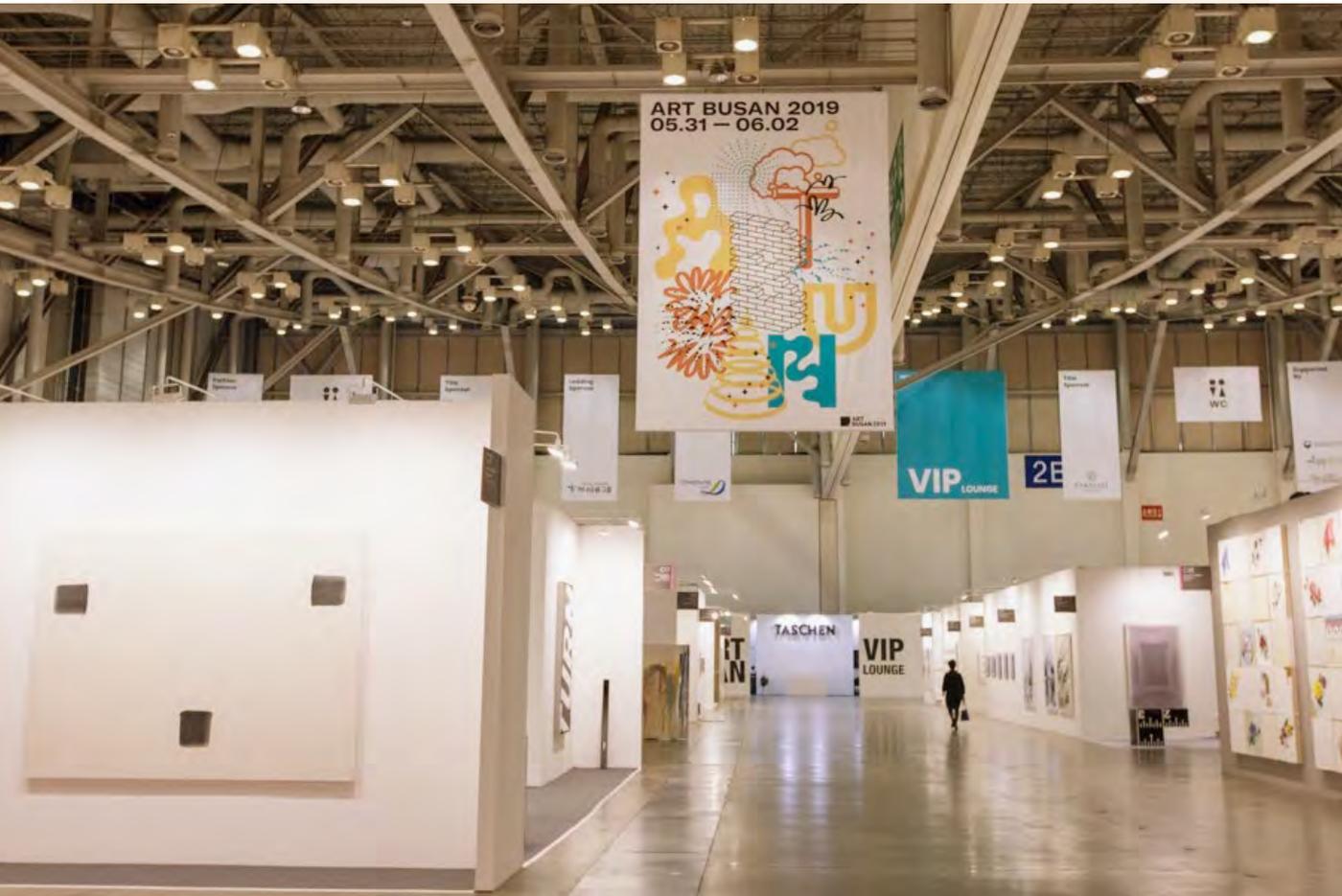
SVIP 도록은 어디로? VIP 투어 전쟁?

이번에 SVIP카드를 소지하고도 도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일요일 오전에 이미 도록이 동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SVIP카드를 발행하는 숫자보다 도록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제작하지 않은 점은 좀 아쉬운 사항이다. 하루 3~4번으로 한정되어 있던 VIP투어는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경쟁적으로 몰려 매일이 전쟁이었다. 첫날에는 개장하자마자 관람객이 경쟁적으로 몰려 고성이가 오갈 정도였다. 주최 측도 내년에는 VIP투어를 기존과 다르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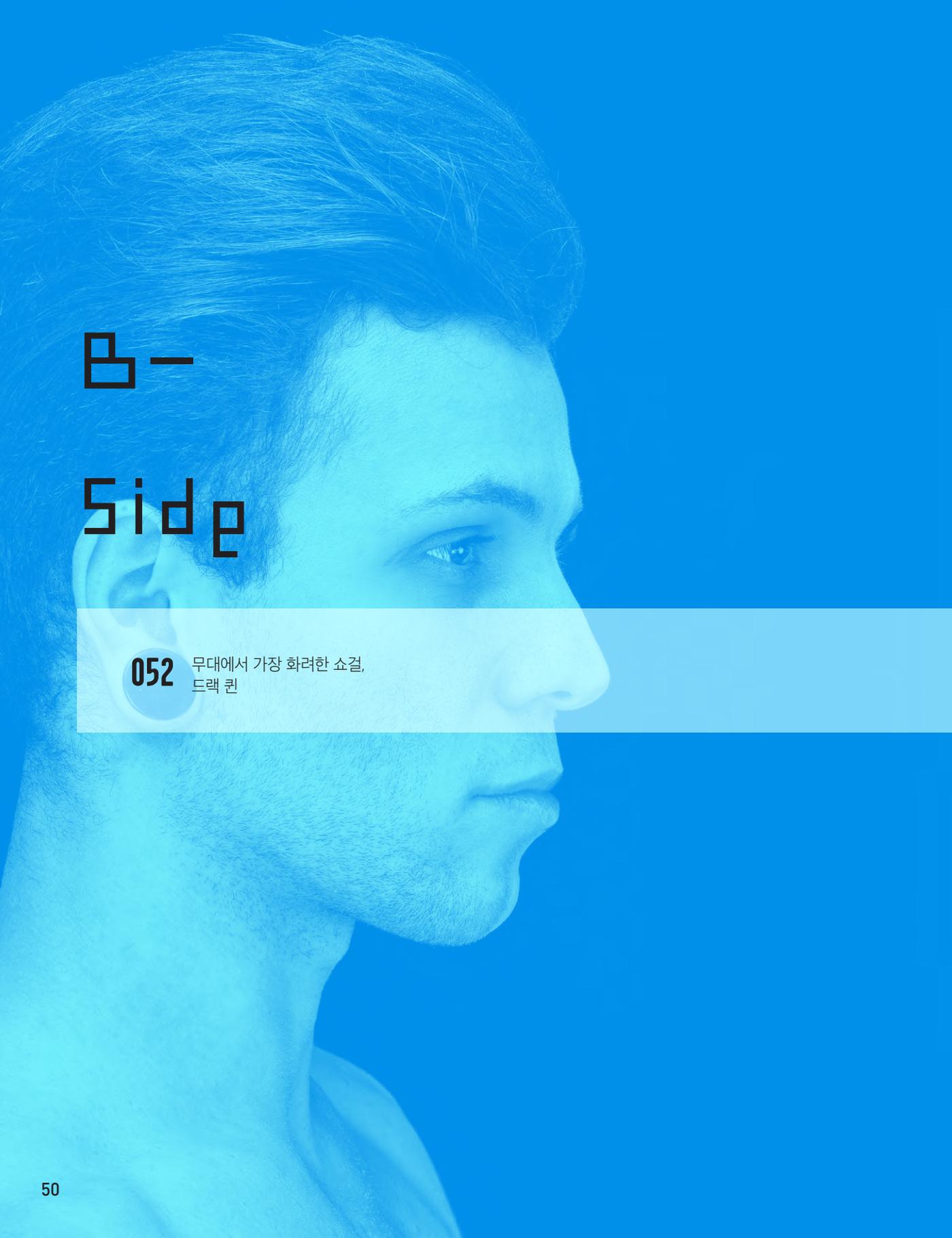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

이렇게 미술계의 큰 행사가 치러지면 관람객, 콜렉터, 갤러리, 작가, 작품가격 등의 많은 정보들이 쌓이게 된다. 그 데이터들을 제대로 수집하고 정제 및 가공해서 분석을 철저히 하면 아트부산이 다른 아트페어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는 미술도 기술과 만나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콜렉터에게 작품, 갤러리 등에 대한 맞춤 정보를 줄 수 있는 AI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것이 다른 아트페어들에 비해 아트부산이 한발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 중 하나일 것이다.



B-

Side

052

무대에서 가장 화려한 쇼걸,
드랙 퀸



무대에서 가장 화려한 쇼걸,

드랙 퀸

글. 문건호(반달) 성북동문화제야행 기획팀장, 문화기획자, 퍼포머

일러두기

*드랙 퀸은 일반 남성이 연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게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드랙 문화도 그 범위가 넓지만 본 원고는 드랙 퀸을 중심으로 두고 썼다.

**‘LGBT’란 성소수자를 의미하며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남자에게 버림받고 우울에 빠졌던 헤드윅이 가발을 쓰고 화려한 무대의 락커로 변신하는 <헤드윅>, 180cm가 넘는 장신의 남자 롤라가 붉은색 키크 부츠를 신고 화려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키크 부츠>, 미인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광활한 사막을 질주하는 세 명의 여장남자 이야기 <프리실라>.

이 세 이야기는 모두 우리에게 생소한 유쾌함과 화려하지만 진심 어린 감동의 무대라는 볼거리를 제공한 영화들이다. 모두 동명의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 이 세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화려한 쇼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과 그 화려한 쇼의 주인공, 쇼걸이 전 부 남자라는 것.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에 걸맞은 메이크업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쇼를 보여주는 쇼걸. 그들을 ‘드랙 퀸’이라 부른다.



드랙 퀸이란?

드랙 퀸은 쉽게 이야기 하면 여장을 한 남성(게이)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여성 페르소나)을 부여하고 거기에 걸맞은 메이크업과 의상을 입고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공연예술분야의 하나이다. 보통 게이 남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내면의 정체성(페르소나)을 표현하기 위해 과도한 여성성을 표출하며, 이 표출은 주로 무대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로 여성이 남성의 페르소나로 분한 드랙 킹도 있다. 드랙 퀸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으며 무대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여성이 무대에 오르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 남성 연극자가 분장을 통해 여성 배역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행위를 드랙의 시초라 볼 수 있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입을 긴 옷들이 무대 바닥을 끌었다는 무대용어 'Drag'에서 '드랙'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으며, 게이 남성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이자 무대 위의 주인공을 의미하는 '퀸'이 합쳐져 '드랙 퀸'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대중문화 속의 드랙 퀸

현대의 드랙 퀸은 표현하고 싶은 내면의 정체성-캐릭터를 창출하고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노래와 춤, 립싱크, 연기 등의 퍼포먼스와 같은 행위예술을 행하는 아티스트의 개념으로 많이 비추어지고 있다. 원래 드랙 문화는 LGBT문화에서도 하위개념의 문화였지만 요즘은 대중매체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주목할 만한 콘텐츠까지 창출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루폴의 드랙 레이스>라는 방송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유명 LGBT 방송인 'LOGO TV'에서 만든 <루폴의 드랙 레이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드랙 퀸이자 모델, 가수까지 섭렵한 만능 엔터테이너인 '루폴'을 프로그램 전면에 내걸고 사회자로 세워 매주 다양한 미션을 통해 최고의 드랙 퀸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드랙 퀸의 세계를 전면적으로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드랙 퀸들은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런웨이>처럼 매번 콘셉트에 맞는 의상을 만들어야 하고, 최고의 모델을 선발하는 <도전 슈퍼모델>처럼 화보를 찍거나 연기를 하는 미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으로 립싱크 퍼포먼스를 통해 공연예술 감각까지 인정받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션만 완수하는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보다 합격 수준이 매우 높다. 참가자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도 특별하며 LGBT의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지지하는 가수(레이디 가가, 마일리 사이러스 등), 배우, 패션디자이너들이 매



» 세익스피어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세익스피어 인 러브>나 경극의 이야기를 다룬 <패왕벌히>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 루폴의 드랙 레이스



» 드랙 퀸 김치의 2019 러쉬 코스메틱 캠페인
(LUSH COSMETICS 사진 제공)



» 드랙 퀸 모어와 가수 이랑의 낭독공연
(드랙 퀸 모어 제공)

회차 등장하여 심사한다. 우승을 거머쥐는 최고의 퀸에게는 1억 원의 상금과 MAC, NYX 등의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의 평생 화장품 협찬, 드랙 퀸 쇼 월드투어의 메인 퀸 선정 등 최고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된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포맷의 방송이었고 참가자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패션과 메이크업에 전 세계 문화계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드랙 퀸은 많은 코스메틱 브랜드와 같이 캠페인을 찍기도 했으며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디자이너와 협업을 이루기도 하고 가수, 배우들과의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화려한 엔터테이너 비즈니스계라는 메인 문화에도 영향력을 주는 하위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인터넷과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루폴의 드랙 레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8번째 시즌에는 한국인 드랙 퀸 김치가 등장하여 한국에서도 드랙 퀸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태원에서 주말 늦은 밤 쇼에서 만날 수 있던 이들을 이제 패션잡지의 모델, 유명가수들의 뮤직비디오, 백댄서 그리고 광고, 브랜드 오프닝쇼, 패션쇼, 인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려함이 부각되는 뮤지컬과도 결이 맞아 헤드윅, 키키 부츠, 라카지, 룩키호러스 등 드랙 퀸이 주제가 되는 뮤지컬들이 성황을 이끌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메인 스트림 문화 판으로의 흡수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드랙 퀸, 화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같은 세상 어지러운 이 밤 트레일러 타운 불빛이 꺼지면,

난 외로워, 난 지쳐, 슬픔에 터질 것 같아

이젠 여행을 떠날 시간 내 얼굴엔 메이크업, 카세트 테이프 노래, 이 예쁜 선물 가발을 쓰면

어느새 난 무대에서 노래하는 핑크라 스타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

헤드윅이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무대 위의 화려하고 당당한 퀸으로 거듭나며 부르는 노래 <Wig in the box>의 가사다. 이 노래는 헤드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드랙 퀸의 상황을 보여주는 가사이기도 하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화려한 소울이지만 그들은 성적 소수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 소수자 안에서도 더 소수인 '드랙'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중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소수자로서의 차별에 소수자 안에서의 차별, 그 안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거쳐 내면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무대 위의 모습이 더 화려하고 빛나는 것



» 라카지(주)레드 앤 블루 사진 제공



» 드랙 퀸 쇼

일지도 모른다.

지난 5월 서울 해방촌 일대에서 제2회 서울드랙퍼레이드가 열렸다. 300여 명의 드랙 퀸과 드랙 킹들 그리고 다양한 드랙을 한 사람들이 고정화된 성 역할을 넘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자는 주제로 거리를 활보했다. 드랙퍼레이드는 드랙 퀸을 이야기하기 전 ‘드랙’의 기본적인 의미로 소수자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권운동이라 이야기한다. 한국에서 드랙이라는 문화를 전면에 내걸고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나일 뿐, I am What I am

나는 나일 뿐, 누가 뭐래도 가장 아름다운 나야 나는 나일 뿐, 나는 나야 난 내가 나야

왜 나면 안 돼? 왜 난 안 돼? 왜 나여선 안 돼?

내 세상 여기 너만의 조그만 행복 내 세상 여긴 부끄럽지 않아 결코

왜 왜 말 못해 난 나라고

날 봐, 이게 바로 나 나는 나일 뿐 연민따윈 난 필요없어

내 모습이 넌 싫어도 난 난 이게 예뻐 왜 안 돼 내가 화장하고 깃털 달면 안 돼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인생 날 바꾸려 마 비웃지 마 날 봐 이게 바로 나

나는 나일 뿐 나는 나야 이유란 없어 이 세상 한 명 오직 하나 세상 단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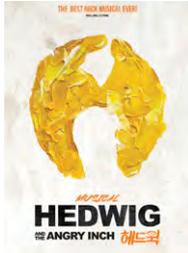
내 인생 그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인생 결국 이걸 바로 나의 선택

난 후회 안 해 날 말할래 날 봐 이게 바로 나

- 뮤지컬 <라카지> 중 <나는 나일 뿐(I am What I am)>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아를 각성하는 일은 살아가면서 계속 마주하는 주제일 것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만큼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어쩌면 드랙 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방법에 가까운 이들인지 모른다. 화려한 쇼 무대 위, 가장 아름답고 강한 그녀들, 그녀들의 문화를 부산에서도 곧 만날 수 있길 바란다.

드랙 퀸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



헤드윅

성전환수술에 실패하여 1인치의 성기가 남은 락커 헤드윅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로 1994년 드랙 퀸 공연이 진행되는 바에서 시작되어 브로드웨이에 진출,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에서도 2005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며, 2001년엔 원작자 존 카메론 미첼에 의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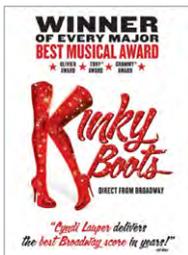
프리실라-사막의 여왕

공연을 하기 위해 세 드랙 퀸이 스쿨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로드무비. 화려함 속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세 주인공들은 사막을 횡단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보듬으며 치유해나간다. 동명의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었다. <투 윈그 푸>라는 할리우드 버전의 작품으로도 만날 수 있다.



라카지오폴(라카지)

프랑스의 유명한 드랙 퀸 쇼를 하는 카바레 클럽 '라카지오폴'의 운영자 조지와 그의 동반자이자 '라카지오폴'의 전설적인 디바 '자자'인 엘빈. 그리고 조지가 낳은 아들 미셸이 등장하는 가족드라마. 게이커플인 조지와 엘빈이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그렸다. 할리우드에서 <버드케이지>로 리메이크되기도 했고 동명의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 <I am What I am>이 이 뮤지컬의 주요 넘버이다.



킨키 부츠

아버지의 죽음으로 구두회사를 물려받게 된 찰리. 하지만 구두회사는 어려운 상황. 드랙 퀸 롤라를 만나 드랙 퀸만을 위한 구두를 만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사회적인 시선,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무겁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역시 동명의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

돌아오요 부산형애 부산영

- 060** **니, 그거 아냐?** | 부산 문화의 정수, 도자문화를 조명하며
흙, 불,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면... 부산요(釜山窯)
- 072** **누꼬?** | 부산 사람이 되어 산화한 도봉 김윤태
- 080** **거 가봤나?** | 역사를 품은 작은 마을, 기장 죽성리



부산 문화의 정수, 도자문화를 조명하며

글. 최춘옥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조선 중기까지의 도자 생산은 경기도 광주 사옹원 분원으로 분원리, 도마리, 번천리, 금사리 등이 한국 도자의 중심이었던 것에 비하여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한국 도자의 중추는 부산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 부산은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반경 일이백 리 안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 일본인들은 왜관을 통하여 다완으로 쓰이는 우리 사발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었고, 우리는 생업의 필요에서 이에 부응하였던 것이다.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까지, 찬란한 우리 도자문화

가마는 도자기를 만드는 질흙과 이를 수비하고 반죽하는 물과 구울 때 불을 때기 위한 화목(火木)이 필수 조건이다. 물과 흙은 불편하더라도 운반이 가능하였으나 땀감은 임도가 없는 산에서 옮기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가마는 인근의 나무를 다 베어 때우면 가마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관요였던 사옹원 광주 분원의 많은 가마들이 뗏목이 내려오는 한강가로 옮겨진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조선이 1407년(태종 7)에 부산포(富山浦)를 개항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허가한 이후에는 도자 그릇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곳이다. 특히 초량왜관의 부산요에서 질흙뿐만 아니라 땀감마저도 옮겨 불을 지피고 도자기를 생산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1개소의 가마로는 도자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양산 법기, 웅천, 김해 등지에도 가마가 형성되어 있었다.



» 강서구 녹산동 출토 청자(출처 부산박물관)



» 기장군 상장안 출토 자기(출처 부산박물관)

우리나라 도자기는 고려 초기에 조질청자가 먼저 제작되었고 점차 뛰어난 도자기술의 발전에 의해 고려청자라는 독창적인 도자기를 탄생시켰으며, 조선 초기에는 분청사기라는 한국적인 도자기를 생산하다 이후 조선백자라는 찬란한 도자문화를 이룩하였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도자문화가 융성하게 발전해온 과정 속에서 부산 및 인근에서의 도자 생산 역시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지역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 속에 도자기와 관련된 유적들이 사라졌거나 훼손되어 정확한 실정을 알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도자를 생산하였던 가마터로 알려진 곳은 전포동, 온천동, 남산동 등지이며, 발굴된 곳은 기장 장안읍 상장안과 하장안, 그리고 강서구 녹산동 요지 등이 있다. 대체로 발굴조사 및 채집된 자기편을 고려하여 부산의 주요 도자기 가마터는 총 12개소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점진적 도시화가 이루어진 기장군에만 남은 가마터

강서구 녹산동 요지는 미음마을 인접 풍상산의 구릉에 위치하며 총 4기의 고려시대 청자가마터 및 조질청자와 철화청자가 확인되어 당시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 등지에서 생산되던 고급청자와 달리 지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2세기 전반에서 12세기 중반까지 운영된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래구 온천동 요지의 경우 금강공원 내의 금정사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구릉 경사면에 등요 형태로 설치되었던 곳이다. 고려시대 흑유자기와 청자, 철화청자 및 조선시대 인화분청, 백토분청 등이 채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정구 남산동 자기요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맞은편 구릉상에 위치하는데 분청사기편, 백자편, 도침, 가마의 벽체 등이 채집되었으며 2~3기의 가마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감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에 미루어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운영된 가마터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지역 중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장군의 경우 가장 많은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기장읍 고촌유적에서는 10~12세기 전반 해무리굽 청자를 생산하였고, 12세기경에는 청강리 무곡 가마터에서 주로 무문의 조질청자를 생산하였으며, 장안읍 오리 신리와 대룡 요지에서는 역시 무문의 조질청자와 상감청자 또한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전국에서 분청사기를 생산하였던 시기인 15세기에 해당하는 장안읍 상장안과 하장안에서는 지방자기소가 운영되어 중앙에 공납하기도 하였다. 이는 1469년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울산군조에서 군 남쪽 장안리 고개에 하품 자기소와 도기소가 각각 1개소 있다고 기록한 것과 부합된다. 특히 2011년부터 진행된 부산박물관의 발굴에 의해 상장안과 하장안 가마터는 아궁이, 번조실, 굴뚝부로 구성된 반지하식 통가마 등요이자 15세기 전반경에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466년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제작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이었던 부산의 도자문화 역시 점차 쇠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는 연질과 경질백자를 서서히 생산하여 지방 수요를 충당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임진왜란을 거친 이후의 시기로 비정되는 정관 두명, 병산, 장안 용소리 등의 백토산지 근처에서 백자가 생산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기장군 하장안 출토 분청사기와 백자(출처 부산박물관)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도자기주문서(출처 부산박물관)

‘도자 전쟁’,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를 끈 조선 도자

한편으로는 임진왜란이 육지에서는 울산성 전투와 바다에서는 명량해전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때, 울산성 전투 이후 퇴각하는 왜군들이 기장을 통하여 도공들을 대거 납치하여 갔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도자 생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곳이 1639년부터 1743년까지 약 100년간 왜관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부산요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부산지역 도자문화의 융성은 부산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 왜관은 1607년 동구 수정동 바닷가에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이 열렸다가 1678년 초량왜관(草梁倭館)으로 이전하여 세워진다.

특히 조선 명품 다완을 구하고자 일본 막부의 명령을 받은 대마도 종가(宗家)는 부산에 가마 설치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완의 견본과 함께 주문서를 동래부에 의뢰하였다. 이에 동래부에서는 예조의 허가를 받아 두모포왜관 외부지역에 도공들을 소집하여 다완을 제작한 후 제공하였다. 이후 일본 대마번이 초량왜관 지역인 중구 광복동 용두산 자락에 위치했던 부산요를 설치하였고, 조선에서 보내온 흙과 연료 및 도공들에 의해 다완을 번조하였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騰錄)’ 기록이다. 즉, 1689년(정묘) 7월 2일자에는 ‘기장의 사기장 1명을 우선 수일 내로 왜관으로 들여보내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그들의 구청에 의해 동래나 양산 및 기장의 도공들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관면 두명리 가마의 경우 17세기 부산요에서 요구한 기물들을 주문받아 생산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당시 주문 제작된 다완들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였으며, 다완의 이름 또한 일본에서 다르게 명명되었다. 그중 조선 사발과 유사한 형태의 고기(五器)라든지 다완 측사면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시유되지 않은 높은 굽을 지닌 오기다완(吳器茶碗)이 많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 각지에 가마가 운영되어 도자기 생산이 활발해졌고, 부산요의 경우 흙과 연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폐쇄되고 만다.



» 대한도기 핸드페인팅 도자전시(출처 부산근대역사관)



» 대한도기 사기그릇 제작과정(출처 1956.11.15. 국가기록원)

피란수도 부산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한도기

근대기로 접어들면 1908년에 설립된 일본의 우수한 도자업체인 가나자와(金沢) 도기의 부산지사가 1917년 부산 영도 영선동에 설립된 후 번성하게 되자 일본경질도기주식회사 이름을 조선경질도기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1925년에는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해방 이후에는 이 조선경질도기가 적산으로 분류되어 당시 양산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지영진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1950년 11월 대한도기주식회사로 개칭되었다가 1972년 제품의 질과 수작업의 한계로 인해 1972년경에 폐업의 과정을 밟는다. 다만 조선경질도기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생산된 도자기들은 아프리카, 유럽, 인도 등지로 수출되었다.

대한도기의 경우 6.25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란을 온 다수의 화가들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즉, 지영진과 친교 관계였던 소정 변관식이 자문역을 맡았고, 변관식과 막역한 사이였던 이당 김은호가 피란을 와서 도자작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월전 장우성 등 그의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변관식의 소개로 이중섭 또한 이곳에서 도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하였다. 석탄가마와 석고틀 사용 및 전사기법 등 근대적인 산업기술이 도입되어 생활도자기 및 서양양식기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청와대는 물론 해외 각국에 수출하는 도자회사로 급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부산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주철관공업(鑄鐵管工業)이 쇠퇴하자 그곳 출신들이 가내수공업으로 '스텐레스'로 불리는 생활용품을 저비용과 적은 노동력으로 다량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자산업 역시 급격히 위축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도기 마지막 동공이었던 김상수가 부산공예학교(지금의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도자실기교사로 재직하면서 가스가마와 전기가마 등을 설치하여 도자제작기술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기도 하였다. 이후 그의 제자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김해 진례 등지에서 지금도 도자작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에는 토암 서태원이 타원요를 기장 교리에 개설하여 분청사기를 재현하고자 하였는데, 보다 뛰어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경북 상주 출신인 도봉 김윤태를 불러들여 상주요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부산에서 전통 도자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도봉 김윤태는 2005년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사기장이 되었으며, 작고 이후 그의 아들인 김영길이 가업을 계승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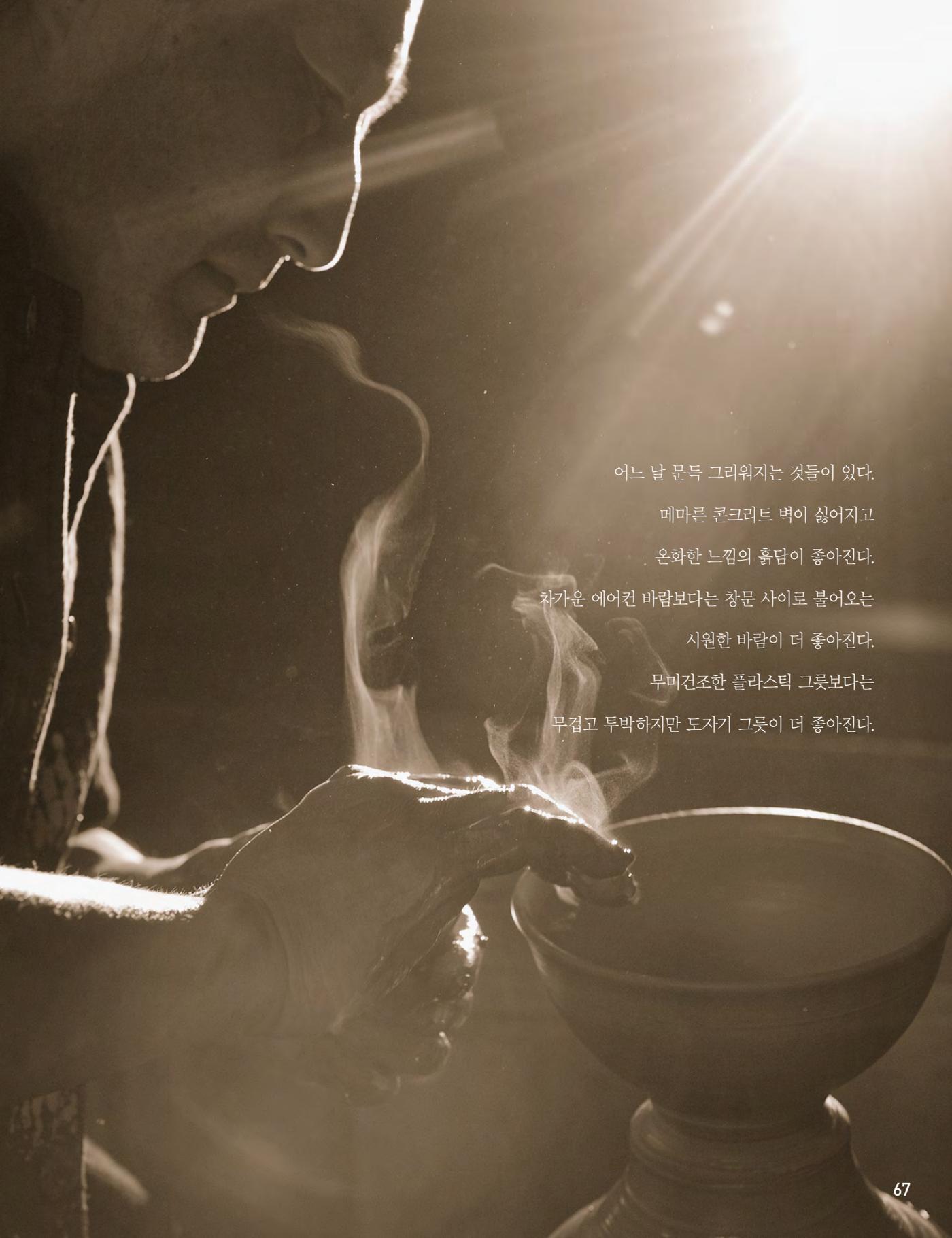


돌아와요
부산사랑
니, 그거 아니?

흙, 불,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면...

부산요 (釜山窯)

글. 오세웅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차장
사진제공. 오세웅, 문병관, 문진우



어느 날 문득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다.

메마른 콘크리트 벽이 싫어지고

온화한 느낌의 흙담이 좋아진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는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더 좋아진다.

무미진조한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무겁고 투박하지만 도자기 그릇이 더 좋아진다.



» 가마재임



» 사기장 김영길

부산요의 수호자

부산요(釜山窯), 그곳은 열린 공간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항상 차와 약간의 다과가 있으며, 어떤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뱉을 수 있는 공간이다.

부산 기장군에는 우리나라 도예가 융성했던 1,000년을 이끌어온 훌륭한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예로부터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질흙이 좋아서 기장지역에는 수많은 가마가 존재했었고, 이곳의 도공(陶工)들은 당시 일본에 수출되는 도자기를 생산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기장의 도예가들은 거친 흙과 마주하며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앞에서 옛 어른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고 있다. 부산의 동쪽 기장군에는 달음산이 있다. 부산요(釜山窯)는 일광 바다를 향하는 달음산의 끝자락인 청광마을을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요를 지키고 있는 주인장 김영길은 도예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으며, 부친이었던 도봉(道峰) 김윤태[2012년 작고]의 장남으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사기장(沙器匠)이다.

사기장 김영길에게 ‘흙’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존재다. 도공의 가문에서 도자기를 피해갈 방법은 없었다. 친구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지만 도공의 아들은 물레가 유일한 놀이기구였다. 모든 집안 일이 도자기와 관련된 것이었고 도자기는 그 가족의 밥줄이기도 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도자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도자기는 그의 삶 전부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사기장(沙器匠)이라는 영예까지 얻었다. 사기장 김영길의 호(號)는 효봉(孝峰)이다. 부친 故 김윤태 선생은 도봉(道峰)이라는 호를 지냈다. 효(孝)라는 글자는 ‘효도’라는 뜻과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 김영길의 호에는 아버지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과 도예로서 전통을 계승한다는 속뜻이 들어 있다.

김영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도예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도봉(道峰) 선생은 전통가마 제작에 있어 국내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을 받았고, 가마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조선시대 전통방식으로 완벽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뛰어난 도예가였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김영길 사기장도 전통을 지키고, 기장의 도자문화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불신[火神]이 주는 시련

도자기의 태동(胎動)은 흙이다. 인간의 손을 거친 흙은 새로운 형태로 태어난다. 찻물이나 물토에 몸을 담갔다 가 1,300℃가 넘는 가마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견디고 나서야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인간의 손에 한 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깨어지는 무수한 도자기들은 우리들의 인생과도 흡사하다. 이렇듯 부산요에는 흙이 있고, 불이 있고, 사람이 있다.

매년 5월이면 자루 하나 어깨에 메고 도자기를 만드는 질흙을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자연은 흙 한 줌을 도공에게 쉽게 주지 않는다. 도공은 도자기 흙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며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 이렇게 갖고 온 흙을 김영길은 보석이라고 말한다. 그 보석과도 같은 흙을 곱게 거르고 걸러서 며칠 동안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다시 빻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손으로 반죽을 만들어서 신죽 단지 모시듯 고이 잠을 재운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부산요 구석에서 발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삐걱삐걱 들린다. 사기장은 마술사처럼 그릇을 빚어낸다. 몇 날 며칠이 지나면 작업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기물(器物)들로 가득 찬다. 제 모습을 갖춘 기물들은 이제 예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릇은 유약이라는 옷을 입혀 화장을 하여야 비로소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다. 타고 난 재(식물성 유약)와 무른 흙이라는 물토(장석질계 유약)를 입은 기물들은 뭔가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며칠 뒤에는 1,300℃를 넘는 가마 속으로 들어간다. 살점이 타들어가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의 시간이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이는 바로 도공이다. 도공에 있어 가마불이란 사투(死鬪)의 연속이다. 단순히 가마 속 온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 앞에 겸손하며 순응하지 않으면 불신[火神]은 도공에게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한다. 김영길 사기장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나게 아름다운 색깔의 그릇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잠시 자만을 했을까? 불신[火神]은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공은 불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 흙밟기

» 뱀가마 소성(燒成)



유리장 밖으로 나온 도자기

봄이 오면 흙을 캐오고, 여름이면 기물을 만들고, 가을이면 가마불을 올리고... 이렇게 부산요의 1년은 심 없이 돌아간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분홍 빛깔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초가 되면, 부산요가 활짝 열린다. 김영길 사기장은 2013년부터 매년 봄이 되면 자신의 작업장을 갤러리로 변신시켜서 전시회를 갖는다.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이했다. **“도자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에게 저희 부산요의 자랑인 전통가마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서 도자기 특유의 느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도자기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도자기의 제작 목적은 용기(容器)이자 생활의 도구이지 감상용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들과 함께 살아온 오랜 친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자기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 드리려고 이런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죠.”

도자기 만드는 작업장을 찾는 것이 왠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람들도 몇 해가 지나면서, 화려한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부산요를 떠올리고 발걸음을 옮긴다. 매년 봄마다 개최하는 ‘봄, 도자전’에는 테마가 있다. 2019년에는 사람의 무늬를 뜻하는 「인문(人紋)」을 주제로 하여, 사람 사는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기도 하였다. 사람의 향기 속에는 또 하나의 만남이 탄생한다. 부산요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구가 되고, 모닥불 앞에서 서로가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금세 밤이 깊어간다. 매년 10월의 마지막 밤은 부산요의 아주 특별한 날이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전통가마에 불을 올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도공에 있어서 가마불이라는 것은 아주 신성한 작업이다. 과거에 가마불 때는 날이 다가오면, 행실을 바르게 하면서 부정이 탈 만한 일을 멀리하곤 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1년 농사의 성패가 한순간에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

김영길 사기장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빠짐없이 가마불을 올린다. 도공에 있어 가장 긴장되는 날이지만 그는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축제다! 인간은 불이 있으면 모두가 모였고, 불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부산요 시절의 마지막 날은 축제의 밤으로 저물어간다.



도공은 뜨거운 가마 앞에서
잠시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다시 가마 속으로 열심히 장작을 계속 집어넣는다.
멀리서 내려오고 있는 불신[火神]을 영접해야 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오늘 밤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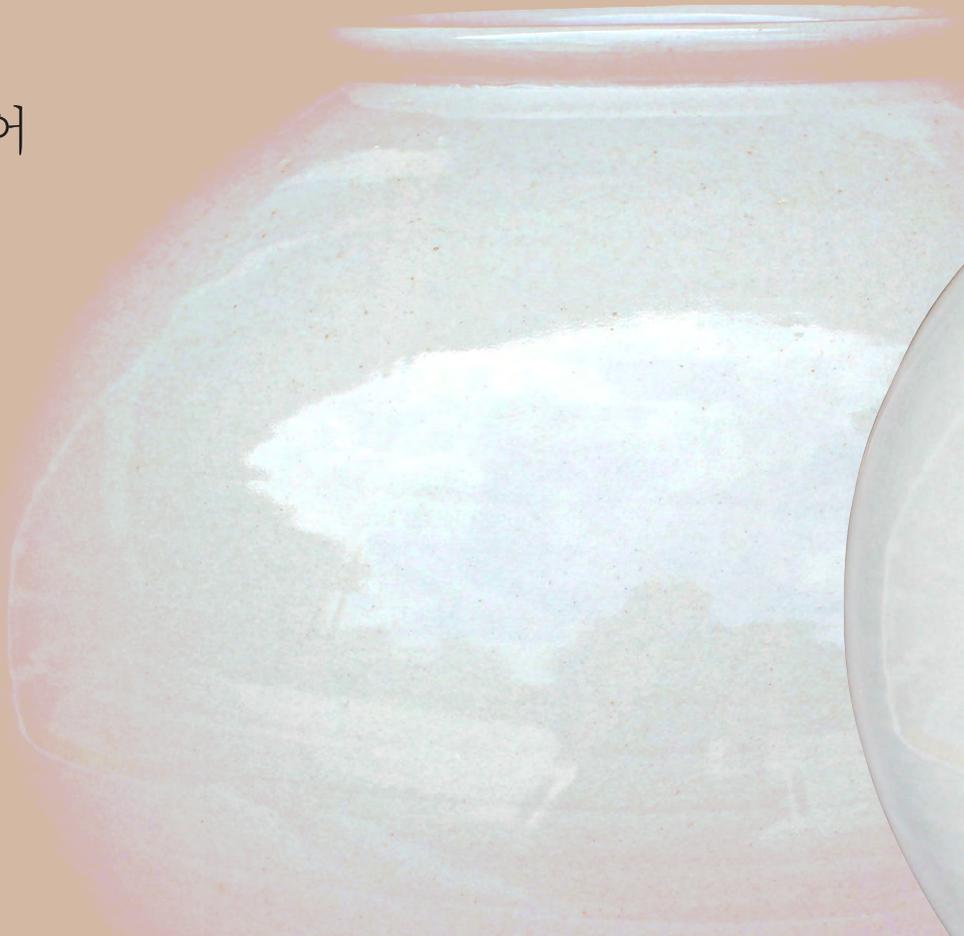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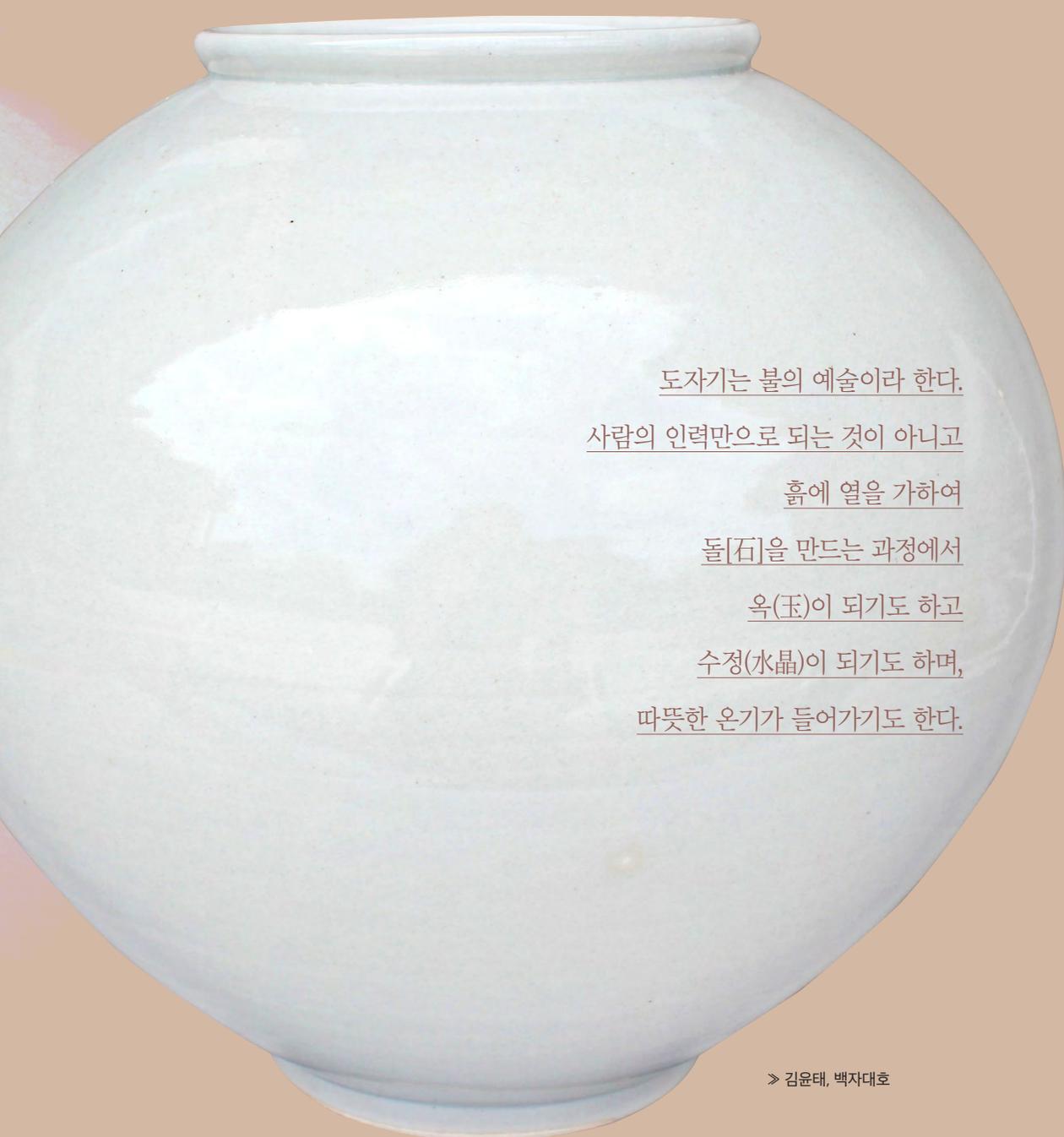
부산 사람이 되어 산화한

도봉 김운태

글. 이현주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사진 제공. 부산요, 문진우

작품은 작가를 닮는다. 작품에는 작가의 인품과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다. 도봉 김운태의 도자는 그의 평소 행실이나 동정(動靜)과 같이 단아하다. 질흙을 만지고 물토와 잿물을 다루면서도 남에게 얼굴이나 옷가지에 흙물을 발리거나 튕긴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천성으로 깔끔한 그의 성벽이 도자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약간 말을 더듬는 그의 언행과 같이 순박하고 거짓도 없고 가식도 없다. 그의 도자는 일상화된 맑은 선비적 기운이 표출되어 있다.





도자기는 불의 예술이라 한다.
사람의 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흙에 열을 가하여
돌[石]을 만드는 과정에서
옥(玉)이 되기도 하고
수정(水晶)이 되기도 하며,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지도 한다.

» 김윤태, 백자대호

어깨 너머로 배운 도자 기술이 재능으로

김윤탈은 1936년 경상북도 문경군 동로면 적성리 갈밭에서 태어나 2012년 부산 해운대의 백병원에서 향년 76세로 작고하였다. 조선왕조 정조대왕 이후 관영수공업의 도자 생산지인 경기도 광주 의 사용원 분원에서 공장안이 폐지되자, 도공(陶工)은 각기 살길을 찾아 도토(陶土)와 화목(火木)이 좋은 곳으로 옮겨 가내수공업으로 전환하였다. 그 대표적 산지가 함경도 영흥, 평안도 회령, 경상도 문경과 산청 등지이다. 이 가운데 도자 생산으로 성업을 이룬 곳이 문경이었다.

김윤탈의 조부 김상희(金相熙)는 조선왕조 말기 가재를 털어 가마를 일구어 부를 축적하여, 입속보관(入粟補官)으로 충의위(忠義衛) 참봉(參奉) 벼슬을 사기도 하였다. 김상희의 장자이자 김윤탈의 부친인 김종규(金鍾奎)가 젊은 나이에 작고하여 가업은 김윤탈의 숙부인 김중선(金鍾先)에게 계승되었으나, 해방의 혼란기와 6.25 전란에 젊은 김윤탈의 숙부가 재산을 보전하기는 풍량이 너무 거세었기에 많은 재산을 깡그리 날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눈요기로, 어깨 너머로 보아온 기술이 도자 생산이어서 품을 팔아서도 여유가 생기면 도자 생산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김윤탈의 손재주가 소문이 나서 인근 재 하나를 넘어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의 큰 도공이었던 임길성(林吉星)의 가마에 도화군으로 발탁되었다. 임길성은 김윤탈의 사람 됨됨이와 성실성, 도화 솜씨의 탁월함에 그의 딸과 혼인을 시키고 가마까지 물려주었다.



» 망당이가마 만드는 장면



» 김윤태와 김영길

부산 문화인의 사랑방이 된 김윤태의 가마

김윤태는 1964년 방곡요를 단양요업으로 바꾸었다. 당시 단양요에는 내로라하는 도공인 서동규와 모흥락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듬해 다완 재현에 뜻을 둔 신정희가 단양요를 찾아와 사진으로 주문을 하였으나 원하는 작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신정희는 김윤태 조부의 세거지인 문경 갈밭요[葛田窯] 인근에서 가마를 운영하던 백산 김정옥의 부친인 김 교수를 찾아 성형을 의뢰하고 조령요를 운영하던 서선길, 천한봉 등과 다완 재현에 성과를 거둔다. 이때 성형에서 굽 깎는 일, 유약의 배합 등에 주변의 모든 전통 도예인들이 도왔는데 그중 한 몫을 한 분이 김윤태였다. 또 이 때 불을 때는 일은 광주 분원 마지막 도공이라 일컫는 이임준의 조카인 이흥규가 맡기도 하였다. 도자산업이 새로이 싹을 틔우자 김윤태는 가마를 늘려 상주군 함창면 윤직리에 새로이 가마를 조성하여 상주요라 하였다.

김윤태의 도자 기술이 입소문을 타자 부산에서 먼저 분청사기 재현에 성공한 서태원이 김윤태를 자신의 가마 인근으로 옮겨 올 것을 권유하여 1975년 말 기장군 교리에 상주요를 이전하였다. 이때부터 40성상에 가깝도록 부산 도예를 위해 매진하였고 후인들 지도는 물론이고 인근 도예인에게 기능 전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가마는 부산 문화인의 사랑방이 되었고 그의 도자는 부산 예술의 꽃으로 승화하였다.

부산의 문화 사랑방은 1960년대까지는 범일동의 학우선생 권상욱 씨를 만나는 것이나, 광복동의 운여 선생 김광업 씨의 동명서예원을 찾아 안부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다방이 다수 생겨 그 역할이 미미해졌으나 구 대청장예식장이 폐업되어 화실 창고 등으로 바뀌면서 증곡 천재동, 청초 이석우, 서양화가 소두 김인환 등이 이곳에 화실을 두게 되자 부산



> 물레 차는 장면

문화인들의 발길이 이곳으로 모이게도 되었다.

후에 이렇다 할 문화 공간이 없어졌을 때도 상주요는 술과 음식이 있고 여기(餘技)의 작희(作戲)가 난무하는 명실공히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서예가 청남 오제봉(1908~1991), 한국화가 금추 이남호(1908~2001), 윤재 이규옥(1916~1999), 청초 이석우(1928~1987), 백포 곽남배(1929~2004) 등과 민화적 요소가 강한 무형문화재 증곡 천재동(1915~2007) 등이 글씨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뺄질나게 들락거렸으며, 다인, 시인, 문예가 등 수많은 호사가들이 이곳에서 기식을 함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의 도자가 다른 어떤 사람의 도자보다 순수하여 청화의 도화를 입히면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원숙한 도자 기술과 독보적인 전통가마 제작기술

김윤태 도자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백자이다. 백자는 눈같이 흰 설백, 한지 같이 흰 지백, 밀가루나 분꽃 가루 같은 분백, 젓빛 같은 유백, 흰 연기 같은 연백과 회백, 달걀 빛깔의 난백 등 기명(器名)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 색조를 달리하였는데, 김윤태는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나 넘침이 없었다. 그러기에 여러 작가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상주요를 찾았으며 김윤태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999년에는 백포 곽남배와 합작전을 열었으며, 부산작가인 윤재와 청초는 당시 화선지 작품보다 도화에 열중하기도 하였다.

옛 사옹원에서는 일이 분업화되어 도자기 장인의 우두머리인 변수(邊首, 분원장인의 우두머리), 아래로 숙련기술자인 부호수(釜戶首, 불 때는 우두머리), 남화장(覽火匠, 불꽃을 보고 온도를 계산하는 자)을 비롯하여, 조기장(造器匠, 성형하는 자), 마조장(磨造匠, 굽 깎는 자), 건화장(乾火匠, 건조하는 자), 화청장(畫靑匠, 그림 그리는 자), 연정(鍊正, 유약 제조자), 간수장(看水匠, 시유하는 자), 파기장(破器匠, 제품 선별자), 수비(水飛, 수비하는 자), 연장(鍊匠, 흙 이기는 자), 참역(站役, 수리 담당자), 화장(火匠, 불 때는 자), 조역(助役, 불 때는 조역) 등의 중간 기술자와 공초군(工抄軍, 잡부), 허대군(許代軍, 잡부), 운회군(運灰軍, 재를 운반하는 자), 부회군(浮灰軍, 재를 수비하는 자), 수도재군(水土載軍, 물토 운반자), 수도감관(水土監官, 물토 감독원), 노복군(路卜軍, 집꾼), 결복군(結卜軍, 진상품을 포장하는 자) 등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까지 작업이 분화되어 있었다. 지금도 물레를 차서 그릇을 만드는 물레대장[사발대장]을 비롯하여 굽 깎기를 전담하는 깎기대장[굽대장]이 있으며, 도자기에 청화 안료로 그림만 그리는 도화사, 문양을 파내고 흙을 메우는 조각사와 가마의 불을 때는 불대장이 있는데 김윤태는 도자 생산의 전 과정을 모두 원숙한 기예로 혼자서 처리하였다.

특히 김윤태의 전통가마 제작기술은 독보적이어서 우리나라의 전통가마는 일정 부분 그에게서 출발하였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 전통가마는 이른바 「망딩이가마」라 이르는 데 ‘흙덩이와 같이 만든 덩어리’로 지었다는 뜻이다. 손으로 일일이 직접 만든 내화성 강한 포탄 모양의 가마 벽돌인 셈이다. 그의 전통가마 제작술은 200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



» 망딩이가마

도자기엑스포의 한국 전통가마 축조의 총감독과 고증을 통해 발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력과 공로로 김윤태는 2005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사기장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불의 예술을 이루고 장렬히 승화한 장인

김윤태는 큰 부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베풀고 즐기는 풍류를 알아 구차하거나 금전에 연연하지 않았다. 2006년에는 조선통신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자생대 부근 영가대에서 통신사가 떠날 당시의 해신제를 재현하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명과 제기를 석 달여에 걸쳐 백여 점 가까이 만들어 수공 한 푼 받지 않고 회사하였다. 이때 김윤태는 1719년 신유한(申維翰)이 통신사 홍치중(洪致中)의 제술관(製述官)으로서 일본을 다녀오면서 지은 해유록(海遊錄)에 제기 일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마다하지 않고 전념하여 제작하였던 것이다.

가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에 어깨가 넓은 입호(立壺) 아래의 좌우에는 저부가 넓은 주병을 늘어놓아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김윤태의 가마에서는 흑여 입호가 화력을 견디지 못하여 약간 내려앉으면 옆의 병들과 붙어버려 상상치 못한 조형물이 탄생되기도 하였다. 한때 그의 희귀한 조형물에 반한 일본인 다완 애호가 집 한 채 정도의 거금을 주겠다고 하였을 때도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꼭 좋다면 가져가

» 김윤태, 백자청화초혜문각병





라고 하였다.

교리의 상주요는 동해남부선 철도확장과 부지정리로 토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자 2004년 일광면 기장대로 1201-20의 원리 시대를 맞게 된다. 이때부터 김윤태는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은 집을 일구고 작품 보관소와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도자기는 불의 예술이라 한다. 사람의 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흙에 열을 가하여 돌[石]을 만드는 과정에서 옥(玉)이 되기도 하고 수정(水晶)이 되기도 하며,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기도 한다. 도봉 김윤태는 그의 도자 기예를 혼자서 독점하지 않고 안홍관과 같은 제자를 기르고 인근 여러 도예인들에게도 그의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 부산 도자 문화를 다시 꽃 피우게 하였다.

그는 거동이 불편할 때까지 손수 물레를 찻으며, 환(患) 중에도 아들이자 전인(傳人)인 영길을 앞세워 가마에 불을 지폈다. 문경과 단양, 상주를 거쳐 부산에 이르러 부산 도자 문화의 초석을 놓고 큰 기둥들을 세웠으며 그의 평소 성품대로 한 줌 티끌 없이 산화하였다.

그의 도자가 다른 어떤
사람의 도자보다 순수하여
청화의 도화를 입히면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품은 작은 마을 기장 죽성리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기장 죽성리는 서너 개의 마을이 모여 형성된 작은 마을이지만 죽성리 왜성, 황학대, 어사암 등 많은 역사적 흔적을 품고 있다.



» 드림성당 일출

죽성리 왜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장기전을 대비하여 축조한 성이다. 울산의 서생포 왜성과 학성 그리고 부산성을 연결하는 중간 요충지에 자리 잡은 성이다. 왜성 아래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다. 6월의 강렬한 햇살이 반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에 뜨겁게 내려앉는다.



» 죽성리 왜성

카메라 장비를 챙겨 성곽으로 향하는 계단에 올랐다. 계단 양쪽으로 여름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고 이마엔 땀이 맺힌다. 50여 미터를 오르니 성곽 둘레로 철조망이 쳐져 있다. 철조망이 높아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첫 촬영부터 맥이 빠지게 한다.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내려오려고 고개를 돌리니 죽성리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나지막한 언덕 아래로 해안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언덕 위에는 커다란 해송이 빼어난 자태로 자리하고 있다. 다섯 그루의 커다란 소나무가 제를 지내는 작은 사당을 에워싸고 있는데 마치 한 그루처럼 보인다. 그 모습 또한 아름답고 웅장하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느낌이 든다.

» 죽성리 전경





» 황학대 정자

다시 발길을 포구로 돌렸다. 포구 맞은편에 소나무 몇 그루를 머리에 이고 있는 나지막한 바위언덕이 눈에 들어온다. 황학대이다. 황학대는 조선시대 3대 가인이라 불리는 윤선도가 유배 생활 초창기를 보냈던 곳이다. 옛날에는 조그만 돌섬이었지만 지금은 매립되어 육지가 되었다.

» 황학대 여명



» 황학대에 새겨진 이곳 출신 인물 진사 방치주





» 드림성당

항학대와 조그만 가게 사이로 난 길로 들어서자 저만치 등대를 벗 삼은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일명 '드림성당'이다. 몇 년 전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촬영용 세트장이다. 성당을 배경으로 한 일출이 좋아 사진가들이 많이 찾고 있다.

드림성당에서 서쪽으로 보면 바다 위에 나지막한 바위가 보인다. 어사암이다. 어사암에는 조선 말 암행어사 이도재와 기생 월매와의 사연이 담겨 있다. 역사 속의 실존 인물과 관련된 증거물이 바탕이 되어 그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 어사암에서 본 드림성당

해풍과 파도에 갈라진 틈 사이로 바다 염분을 이겨낸 노란 땅채송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퇴약별 아래 서너 시간 카메라와 씨름하고 나니 놀리 쓴 병거지모자가 땀에 축축하다. 손목시계가 5시를 알리지만 하지의 하늘은 아직도 한낮이다.

※ 죽성리 왜성, 드림성당 일출사진은 이전에 촬영한 사진임

그리고 재단

088 듣기 | 부산문화재단 인턴은 이렇게 바랍니다!

090 말하기 | 2019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7개의 '빛이 모이다'

092 보기 | 주요행사



부산문화재단 인턴은 이렇게 바랍니다!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2018년 12월부터 길게는 6개월, 짧게는 4개월간의 부산문화재단 인턴들의 인턴십이 끝났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각 팀에서 열심히 노력한 인턴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부산문화재단에 전하는 바람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홍보팀 한지송

저는 경영지원팀과 기획홍보팀에서 총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셔서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라는 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금정구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좋은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이 많이 개최되어(게다가 거의 무료) 인턴 생활이 끝나도 종종 행사에 참여하고 싶는데 금정구에는 없어 아쉽습니다. 그래도 시간 내서 사상인디스테이션이나 F1963, 감만창의문화촌 등지에 자주 놀러가겠습니다~!



문화교육팀 이상우

부산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은 대표번호로 전화한 발신인이 정확한 사업내용을 모르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정확한 민원 처리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처음 전화를 걸 때 ARS 기능으로 미리 선택지를 주어 담당 부서로 근접하게 연결되도록 설계하면 전화상담 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연락할 수 있는 업무용 메신저를 만들어서 전화상담 외 1대1 상담이 가능한 수단도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유팀 김재희

현재 부산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모니터링도 다니고, 문화공유팀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사업을 통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 부산 시민, 그리고 예술가들의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사회생활을 부산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어 뜻깊고, 많은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저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간 저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청년문화팀 허수지

저는 문화예술이 대중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4개월이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청년문화팀에서 일하며 많은 청년예술가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저의 꿈만 같던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실현해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청년문화팀이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새롭게 만들어 모든 청년 그리고 청년예술가들의 문화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정관리팀 송동업

부산문화재단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의 문화예술을 가꾸고 꽃피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해 처음으로 조선통신사 축제를 알게 되었는데,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 축제처럼 부산하면 조선통신사 축제가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간팀 손정은

저는 부산문화재단 배식봉사를 추천합니다. 재미있었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매번 나가서 밥을 사 먹거나 시켜먹던 저해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배식봉사를 인턴기간 동안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술지원팀 최정빈

저는 6개월 동안 문화교육팀과 예술지원팀에서 근무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뜻깊은 실습기간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밝고 즐거운 사무실 분위기 덕분에 더 즐겁게 근무했습니다. 불편했던 점을 굳이 꼽자면 공사장 건물 때문에 건물이 조금 흔들려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가끔 있는 일이라 괜찮았어요! 즐거운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21일은 2002년 UN총회에서 지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우리나라는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5월 21일부터 1주간은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되어 올해 역시 전국 곳곳에서 차이를 즐기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가 열렸다. 부산에서는 지난 5월 25일 토요일, 차들만 지나다니는 한적했던 서면1번가가 문화다양성 축제 열기로 시끌벅적하였다.

2019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7개의 '빛이 모이다'

글:
강은정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

개최일자: 2019. 5. 25(토) **장소:** 부산 서면1번가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기획·연출: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퍼포먼스·안무:** 이재은(무용가)

참여단체: 포피스, 영도 쓰리디펜아트, 고딩스, 지구를 여행하는 사람들, 푸른하늘의 몽골, 필리핀 공동체 FCC, 손앤정 국악아트컴퍼니, 민요그룹 흥, 조용한 수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모퉁이 극장, 생각하는 바다, 책방 비비드, 정미모, 버스트오케스트라, 음악극단 콩나물, 우즈베키스탄 여인들, 베트남 한베갈매기, 051FM 등



정말 EASY - 우리 아직 할 말이 많아

소수문화의 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은 기획단을 중심으로 세대, 장애, 다문화, 독립예술, 생태환경, 자유주제 등 7개 그룹, 25여 개 내외의 다양한 소수문화단체 및 커뮤니티

니티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연대하여 참여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부산 문화다양성 8가지 선언을 시작으로 전시·체험이 이루어지는 문화다양성 커뮤니티 존 부스 운영, 장애-오카리나, 다문화-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남미, 수화 퍼포먼스 공연 등이 진행되었고, 각 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부산 문화다양성의 메인 프로그램인 런웨이&엔딩 퍼포먼스 '빛이 모이다'가 열렸다. 이번 런웨이는 각 분야별로 대표되는 7개의 문화다양성 슬로건 발언을 함과 동시에 일곱 가지 빛들이 모이면 더 밝아진다는 콘셉트로, 부산지역 예술단체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이 연출하였다.

올해는 특별히 연출팀과 함께 제작한 부산 문화다양성만의 주제곡 <정말 EASY>를 제작하였다. 주제곡 <정말 EASY>는 차별과 혐오를 견어내고 모든 이들이 존중과 이해를 쉽게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 같은 동작으로 노래에 맞춰 엔딩 퍼포먼스 커뮤니티 댄스를 펼쳤다.



우린 아직 할 말이 많아(할 말이 많아)
차별과 선 긋고 혐오를 견어내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끌어안고
계속 숨을 쉬어요 노래를 불러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때까지
아마 계속 모일 거야 우린(잘 살 거야)

- <정말 EASY> 가사 中 -

‘부산다운’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의 지속적 모색

이번 2019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 서로의 문화를 존중, 확산하고 연대한다는 주제로 의미 있었다.”라는 평이다. 페스티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단, 기획단, 연출팀은 ‘너와 나의 경계는 없다’는 의미로 휠체어를 탄 이들을 포함하여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메인 무대단을 없애는 등 프로그램 및 행사장에 세세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다만 4년째 열리면서 생기는 다양한 신규 커뮤니티 발굴 참여, 페스티벌 시기 및 장소 변경 등이 개선점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을 일반적인 행사의 형태가 아닌 부산 문화다양성만이 가진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지속적인 과제이다. 부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주간행사인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문화다양성 리더러시, 문화다양성 교육 등 다양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10월에는 문화다양성 도시 브랜드를 가시화하기 위해 부산 <아시아 문화다양성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이의 관심을 바란다.

July

7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7
<p>사진으로 떠나는 예술로 ~ 7. 19.(금) 감만창의문화촌 사랑방 갤러리</p> <p>굿모닝 예술인 <전혜진 작가展> ~ 7. 12.(금) 아트현</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홍티아트 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 김등용 개인전 <심심(甚深)을 다하여> ~ 7. 17.(수) 홍티아트센터</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F1963 <Factory Movement> 19:00 F1963 중정스퀘어</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8	9	10	11	12	13	14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청년문화포럼 「청년 BBM」 2회차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용두산공원</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p>메이드 인 사상 <목공예> 10:00 사상인디스테이션</p> <p>메이드 인 사상 <캘리그래피> 14:00 사상인디스테이션</p>
15	16	17	18	19	20	21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인디 위홀 20:00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22	23	24	25	26	27	28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Natural STUDIO 5회차 한성1918</p>	<p>F1963 기획공연 F1963</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p>F1963 코미디 페스티벌 연계공연 F1963 중정스퀘어</p>	<p>메이드 인 사상 <유아교육> 10:00 사상인디스테이션</p> <p>메이드 인 사상 <가족공예> 14:00 사상인디스테이션</p>
29	30	31	<p>독립출판 <Message> 전시 - 한성1918 (7월) 화~토요일 09:00~18:00</p> <p><Music STUDIO> 정기프로그램 - 한성1918 (7월~9월) 화~금요일 11:30~13:00</p> <p><Photo STUDIO> 정기프로그램 - 한성1918 (7월~9월) 매주 토요일 09:00~18:00</p>			
	<p>B-SIDE 전시 ~ 8. 25.(일)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19:00 울산 태화강</p> <p>사람책 읽는 시간 5회차 19:00 한성1918</p>				

* 행사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August

8

MON	TUE	WED	THU	FRI	SAT	SUN
<p>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 쓰시마 행사 8.3.(토)~4.(일) 일본 쓰시마</p> <p>F1963 기획전시 - F1963 8.3.(토)~9.15.(일)</p>			1	2	3	4
			<p>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다대포해변공원 푸른광장 / 창원 플라워랜드</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p>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창원 씨티세븐 / 부산 시민공원</p> <p>2019 감만상상데이 감만창의문화촌 일원</p> <p>달리는 부산문화 기획형 뮤지엄페스티벌 국립부산과학관</p>		
5	6	7	8	9	10	11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12	13	14	15	16	17	18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p>2019 청년문화 인력양성 <청년 University> 사상인디스테이션</p>	
19	20	21	22	23	24	25
		<p>사람책 읽는 시간 6회차 19:00 한성1918</p>	<p>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 시모노세키 행사 ~ 27.(화) 일본 시모노세키</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26	27	28	29	30	31	
		<p>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창원 대동백화점</p>	<p>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광안리 만남의 광장 / 울산 태화강</p> <p>Natural STUDIO 6회차 한성1918</p>		<p>홍티예품 <새로이, 새활용> 홍티아트센터</p> <p>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울산 삼산동 디자인거리 / 부산 시민공원</p>	

* 행사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September

9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한일축제한마당 서울 코엑스
2	3	4 2019 홍티아트 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 최정은 개인전 ~ 20.(금) 홍티아트센터	5	6	7	8 메이드 인 사상 10:00, 14:00 사상인디스테이션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19 청년문화포럼 「청년 BBM」 3회차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19	20 인디 워 홀 20:00 사상인디스테이션 2019 청년 아트페어 ~ 29.(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몰	21	22 메이드 인 사상 10:00, 14:00 사상인디스테이션
23	24	25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 어린이 대공원 / 울산 태화강 사람책 읽는 시간 7회차 19:00 한성1918	26 2019년도 청년문화박람회 ~ 29.(일)	27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부산 해운대 이벤트광장 Natural STUDIO 7회차 한성1918	28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경남 남해 편백자연휴양림 / 부산 시민공원 제7회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27.(금) ~ 29.(일) 동래문화회관 전관 부산문화재단 10주년 기념행사 25.(수) 부산시민공원 백산홀	29
30						

* 행사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여기 다 있네!

#부산문화재단 SNS와 친구를 맺어야 할 이유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이
가능하다.



f 좋아요



blog 이웃신청



YouTube <컬쳐Tube>
구독 신청



Instagram 팔로우



TALK 옐로아이디
친구 추가



문화동행 10년,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리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울속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토통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희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2)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사라지는 집 금강로131번나길 30
·김민정 작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92